
저자 (Authors)	우병준, 이형우, 김형진, 한봉희, 정세미, 이윤경
출처 (Sourc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 2016.01, 781-851(7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95936
APA Style	우병준, 이형우, 김형진, 한봉희, 정세미, 이윤경 (2016).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781-851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우병준* · 이형우** · 김형진*** · 한봉희**** · 정세미***** · 이윤경*****

1. 한육우

-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 1.2. 쇠고기 교역여건 전망
-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2. 젓 소

- 2.1.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 동향
- 2.2. 유제품 교역여건 전망
- 2.3.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3. 돼 지

-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 3.2. 돼지고기 교역여건 전망
- 3.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4. 산란계

- 4.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 4.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5. 육 계

- 5.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 5.2. 닭고기 교역여건 전망
- 5.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6. 오 리

- 6.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동향
- 6.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jwoo@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lhw0906@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junjang00@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anb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jdtpal55@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yk0817@krei.re.kr



1. 2015년 수급 및 시장 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릿수가 2012년 306만 마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4년(27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68만 마리였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도축 마릿수 또한 2014년(98만 마리)보다 4.6% 감소한 94만 마리였다. 국내 생산 감소와 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 가격은 2014년(1만 4,283원)보다 14.0% 상승한 1만 6,284원/지육kg이었다. 국내 가격 상승으로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6.3% 증가한 29만 7천 톤이었다.
- 2014년 이후 분유 재고량 급증으로 착유우 도태, 쿼터 감축 등 원유 감산 대책이 추진되었다. 2015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4.6% 감소한 41만 1천 마리였다. 그 결과 2015년 원유 생산량은 2014년 대비 1.9% 감소한 217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2015년 분유 재고량은 2만 343톤이었다.
- 2014년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5년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2.7% 증가한 1,013만 마리였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는 2014년 대비 1.2% 증가한 1,588만 마리였다. 국내 가격 상승으로 201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4년 대비 29.2% 증가한 35만 4천 톤이었다. 돼지 도매가격은 2014년 대비 2.9% 상승한 4,939원/kg(탕박)이었다.
- 2015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4년 6,509만 마리보다 7.8% 증가한 7,019만 마리였다. 계란 생산량은 총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4년보다 3.1% 증가한 67만 7천 톤이었다. 2015년 계란 공급량의 증가로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1,373원/특란 10개)보다 8.8% 하락한 1,252원(특란 10개)이었다.

- 2015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계열업체의 사육 증가로 2014년보다 6.3% 증가한 8,907만 마리로 조사되었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계 마릿수는 2014년 대비 8.6% 증가한 9억 6,127만 마리로 추정된다. 닭고기 생산량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은 2014년(1,574원/kg)보다 5.7% 하락한 1,484원이었다.
- 2014년 HPAI 발생 이후 종오리와 육용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여 2015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36.3% 증가한 967만 9천 마리였다. 이에 따라 도압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5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4년보다 12.7% 증가한 11만 9,996톤이었다. 생산량 증가로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4년보다 15.2% 하락한 6,761원/3kg이었다.

2. 2016년 전망

- 2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의 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6.0% 감소한 24만 톤, 쇠고기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 감소로 2016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5년 1만 6,284원(583만 원/600kg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 6,691원(598만 원)으로 전망된다.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2016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보다 1.3% 감소한 10.8kg으로 예상된다.
-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한 패널티 부여로 저능력우 도태가 이루어져 2016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0.7% 감소한 40만 8천 마리로 전망된다.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지속적인 원유 감산 대책으로 2016년 원유 생산량은 2015년 대비 3.5% 감소한 20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FTA에 의한 무관세 쿼터(TRQ) 증량 및 관세 인하로 2016년 유제품 수입량은 2015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2016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0.7% 증가한 1,020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도축 마

릿수는 2015년보다 2.0% 증가한 1,620만 마리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지육가격 하락으로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27.6%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16년 돼지 지육가격은 년보다 11.6% 하락한 4,364원/kg 으로 전망된다.

- 2016년 계란 생산에 가담할 2014년 8월~2015년 12월까지의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4% 증가한 7,190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6년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란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12.9% 하락한 1,091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2016년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5% 증가한 9,132만 마리, 도계 마릿수는 2.3% 증가한 9억 8,375만 마리로 전망된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닭고기 수입량도 증가하여 2016년 닭고기 공급량은 2015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생체 kg당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 대비 8.5% 하락한 1,358원으로 전망된다.
- 종오리 입식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9.3% 증가한 1,058만 마리로 예상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암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7.6% 증가한 1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의 증가로 2015년보다 7.6% 하락한 6,246원/3kg으로 전망된다.

3. 중장기 수급 전망

- 한육우 사육 마릿수의 감소세는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도축은 2019년을 저점으로 이후 증가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인하로 2017년 이후에도 수입 쇠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국내 시유 수요 감소로 젓소 사육 마릿수는 향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그에 따라 원유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품 수입량은 무관세 쿼터 증량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도매가격 하락으로 2018~19년 감소세를 보이고 이후 모든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로 도축 마릿수도 2017년 고점을 기록한 뒤, 2018~19년 감소 후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7년까지는 국내 생산량 증가와 도매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이후 육류 소비 증가와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의 규모화와 계란 소비 증가의 영향으로 향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성 증가로 계란 공급량이 증가하고 1인당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이후 계란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육계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7년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을 전후로 HPAI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 산지가격은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증가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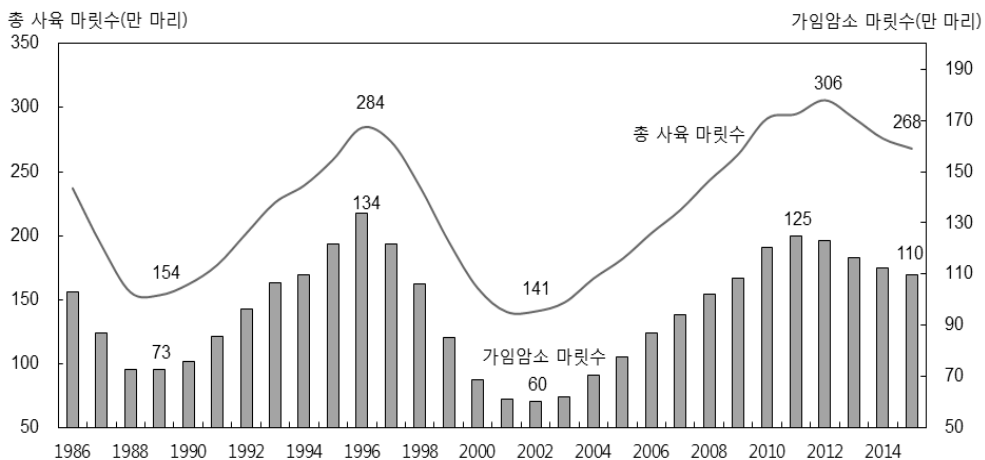
1. 한육우

1.1.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동향

1.1.1. 사육 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증감을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다. 199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84만 마리(가임암소 134만 마리)를 기록한 이후 외환위기 등으로 2001년에는 140만 6천 마리(가임암소 60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 증가로 2002년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8.0% 증가하여 2012년에는 306만 마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송아지 가격 약세로 번식의향이 위축되어 2011~13년 송아지 생산이 감소하여 2013년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2015년 사육 마릿수는 2014년(276만 마리)보다 3.0% 감소한 268만 마리였다.

그림 23-1. 한육우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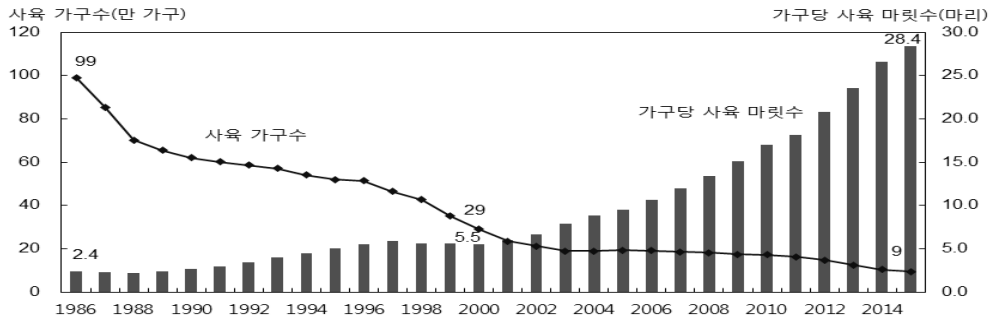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 2000년에 29만 가구였던 사육호수는 영세 한계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9만 4천 가구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규모화 진전으로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00년 5.5마리에서 2015년에는 28.4마리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3-2. 한육우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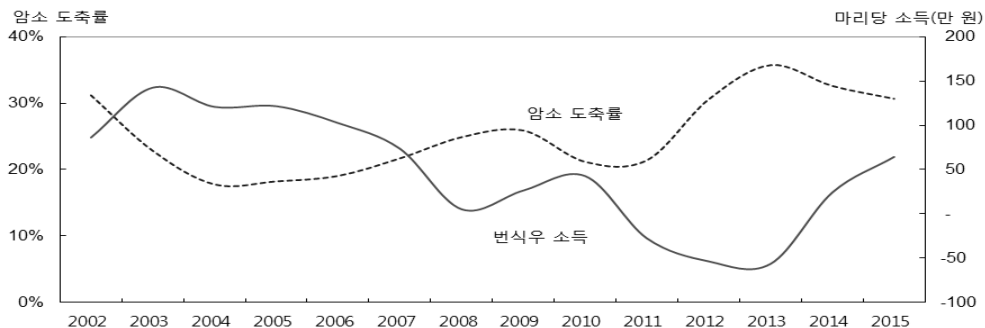


주: 매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자료: 통계청

- 일반적으로 번식우 소득은 암소 도축률에 영향을 미친다. 2011~13년 기간에는 송아지 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우 수익성 악화로 암소 도축률이 높았다.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번식우 소득이 개선되면서 암소 도축률이 하락하였다.

그림 23-3. 암소 도축률과 번식우 소득



주 1) 암소 도축률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중 올해 도축된 마릿수 / 전년도 1세 이상 암소 마릿수임.

2) 2015년 번식우 마리당 소득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 비육우 소득 추정 결과, 등급별 소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3등급을 제외한 전(全) 등급에서 정(正)의 소득으로 추정되었으며, 1+등급과 1++등급 간 소득격차는 58만 원, 3등급(최하)과 1++등급(최고) 간에는 238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2015년 한우 도매가격 및 비육우 소득 추정

단위: 천 원/600kg

등급	도매가격 (원/kg)	가격(A) (600kg 환산 기준)	경영비(B)	소득 (A-B)
1++	19,336	6,949	4,728	2,221
1+	17,718	6,368		1,640
1	16,487	5,925		1,197
2	14,451	5,194		466
3	12,706	4,566		-162

주 1) 등급별 경락가격을 한우 자육률(59.7%)을 이용해 600kg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2) 경영비는 2014년 통계청 발표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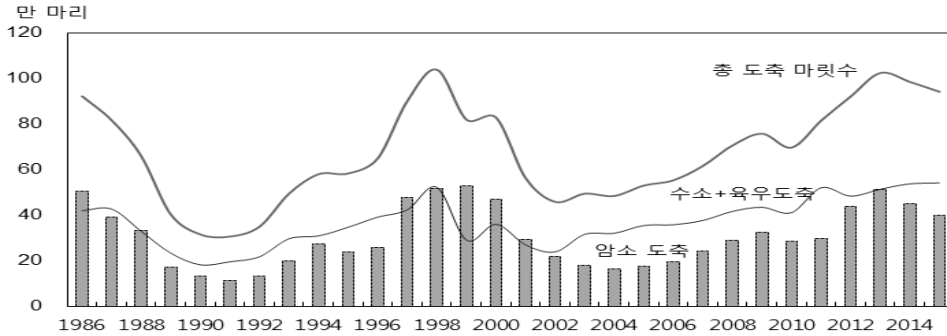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1.2. 수급 동향

가. 공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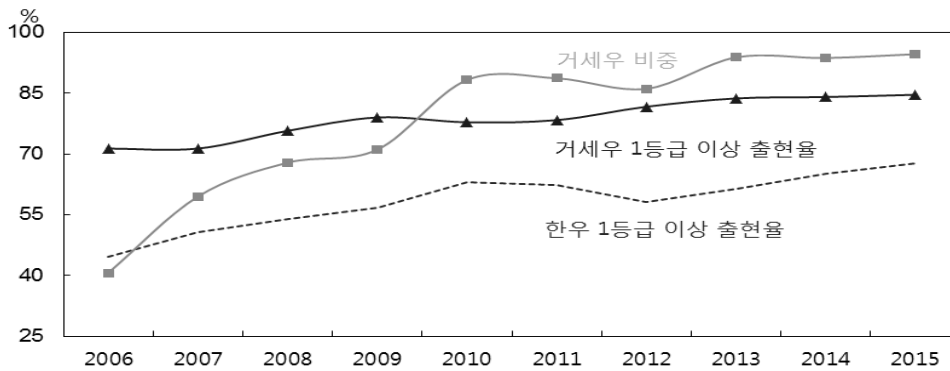
- 암소 도축이 크게 감소하여 2015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2014년보다 4.6% 감소한 94만 마리(한우 88만 마리)였다. 이 중 암소 도축은 41만 마리(2014년 대비 7.7% 감소), 수소는 47만 1천 마리(0.3% 감소), 육우는 5만 7천 마리(14.6% 감소)였다. 총 도축 마릿수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2014년 45.4%)를 기록하였다. 이는 암소 번식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2015년 수소 도축 중 거세우 비중은 94.8%(2014년 93.7%)를 기록하였다. 거세우 도축 증가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14년 65.0%에서 2015년 67.9%로 2.9%p 상승하였다.

그림 23-4. 한육우 도축 마릿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림 23-5.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거세우 비중



주: 거세우 비중=거세우/(비거세우+거세우)×10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5년 쇠고기 수입량은 29만 7천 톤으로 2014년보다 6.3%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호주산이 16만 4천 톤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의 55%를 점유하였다. 미국산은 11만 3천 톤(38%), 뉴질랜드산은 1만 8천 톤(6%), 기타 국가산은 2천 톤(1%)이 각각 수입되었다.
- 2014년과 2015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가장 많았던 2003년(22만 톤)과 비교하면 아직은 절반 수준이다. 이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과의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과거 수준만큼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3-2.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타	합계
2009년	50 (25)	117 (59)	0 (0)	30 (15)	1 (1)	198 (100)
2010년	91 (37)	122 (50)	0 (0)	31 (12)	2 (1)	245 (100)
2011년	107 (37)	145 (50)	0 (0)	33 (12)	4 (1)	289 (100)
2012년	100 (40)	124 (49)	2 (1)	26 (10)	1 (1)	254 (100)
2013년	89 (35)	143 (56)	1 (1)	22 (9)	1 (1)	257 (100)
2014년	105 (37)	150 (53)	3 (1)	21 (8)	1 (1)	280 (100)
2015년	113 (38)	164 (55)	1 (1)	18 (6)	2 (1)	297 (100)

주: 괄호 안은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5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4년보다 2.0% 감소한 25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6.3% 증가한 29만 7천 톤이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총 공급량은 2014년보다 2.3% 증가한 55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 수입량 증가에 따른 쇠고기 총 공급량 증가로 2015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4년보다 1.6% 증가한 10.9kg으로 추정된다.

표 23-3. 쇠고기 수급

단위: 천 톤(정육 기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²⁾
공급	전년 이월	-	-	-	2	-	-
	생산	186	216	234	260	261	256
	수입	245	289	254	257	280	297
	계	431	505	488	519	541	553
수요	국산소비량	186	216	234	260	261	256
	수입소비량	245	289	252	259	280	297
	차년 이월	-	-	2	-	-	-
	계	431	505	488	519	541	553
총 소비량		431	505	486	519	541	553
자급률(%) ¹⁾		43.2	42.8	48.2	50.1	48.1	46.2
1인당 소비량(kg)		8.8	10.2	9.7	10.3	10.8	10.9

주 1) 자급률 = $\frac{\text{국내산 쇠고기 소비량}}{\text{쇠고기 총 소비량}}$

2)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수요 동향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618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4일까지 7일간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2015년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빈도가 161명(26.5%)으로 2014년(33.8%)보다 줄어 들었다. 이는 국내산 쇠고기 가격 강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표 23-4. 2015년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량 변화

단위: 명(%)

구분	국내산	수입 쇠고기
늘렸다	161(26.5)	93(15.9)
변동 없음	329(54.1)	234(40.1)
줄였다	118(19.4)	257(44.0)
합계	608(100.0)	584(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정육점형 식당(정육점과 상차림 비용을 받는 식당의 결합 형태)을 경험한 빈도가 응답자의 79.3%(444명)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방문횟수는 3.85회였으며, 평균 1인당 식사비용은 2만 5,921원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자 구매의향을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21%)이 2015년(17%)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해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41%)도 2015년(37%)보다 높았다.

표 23-5. 2016년 국내산과 수입 쇠고기 소비자 구매의향 빈도

단위: 명(%)

구분	국내산		수입 쇠고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늘리겠다	87(14.2)	95(15.6)	48(8.1)	45(7.6)
변동 없음	395(64.6)	386(63.3)	299(50.4)	293(49.5)
줄이겠다	129(21.1)	129(21.1)	246(41.5)	254(42.9)
합계	611(100.0)	610(100.0)	593(100.0)	592(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쇠고기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침체와 가격 부담(45.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상의 이유(36.5%)라고 답하였다. 가족질병에 따른 안전성 의심(7.6%)과 둔갑판매에 대한 의심(4.8%)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이 적었다.

표 23-6. 쇠고기 소비량 감소 이유

단위: 명(%)

	빈도
가족질병으로 안전성 의심	19(7.6)
건강을 위한 육류 섭취량 감소	91(36.5)
유통과정상의 둔갑판매에 대한 의심	12(4.8)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	29(11.6)
쇠고기 가격이 높아서	84(33.7)
기타	14(5.6)
합계	249(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014년 52.2%에서 2015년에는 50.1%로 다소 줄어들었다. 이는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 정체(2014년 37.3% → 2015년 37.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7. 미국산 쇠고기 구매경험 조사

단위: 명(%)

연도	구입경험 있음	구입경험 없음	총계
2012년	336(51.8)	313(48.2)	649(100)
2013년	328(51.6)	308(48.4)	636(100)
2014년	332(52.2)	304(47.8)	636(100)
2015년	302(50.1)	301(49.9)	603(100)

주: 2013년 1월, 2014년 1월, 2015년 1월 조사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미국산 쇠고기 구입을 늘릴 경우, 어떤 육류의 소비량을 줄일 것인지에 대해 소비자의 26.4%는 한우고기, 39.0%는 호주산 쇠고기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외 돼지고기 7.8%, 닭고기 0.8%, 줄일 생각 없음이 26.1%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를 줄이려는 응답자가 많아 수입육 간 대체관계가 더 커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8. 미국산 쇠고기 구매시 타육류 소비 감소 의향 변화

단위: 명(%)

구분	한우고기	호주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줄일 생각 없음	총계
2013년	84(29.9)	113(40.2)	17(6.0)	2(0.7)	65(23.1)	281(100)
2014년	58(26.5)	97(44.3)	25(11.4)	4(1.8)	35(16.0)	219(100)
2015년	61(23.0)	105(39.6)	27(10.2)	6(2.3)	66(24.9)	265(100)
2016년	102(26.4)	151(39.0)	30(7.8)	3(0.8)	101(26.1)	387(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한우와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TP)을 조사한 결과, 100g당 지불의향 금액은 한우 1등급 등심(냉장) 3,607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1,322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1,550원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 지불의향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는 2015년에 비해 한우고기 등심 지불의향이 수입육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2배 이상의 지불의향을 보였다.

표 23-9. 한우 및 수입 등심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추이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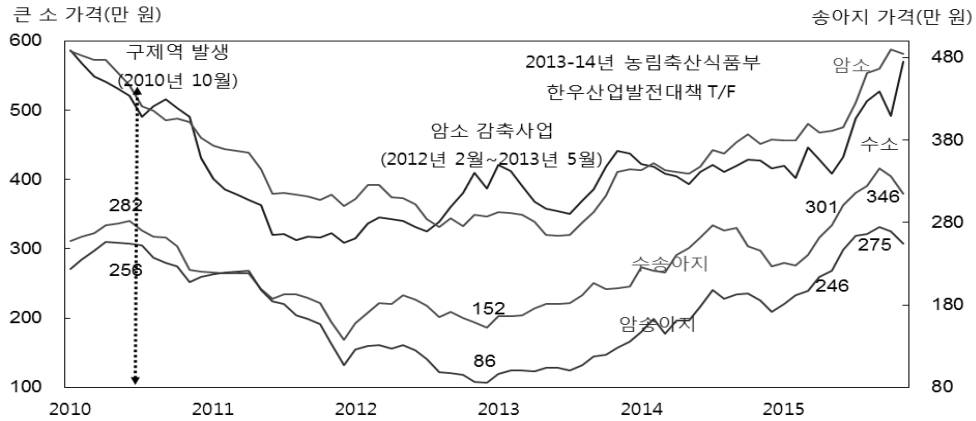
구분	등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우/미국산	3.07	2.86	2.82	2.73
한우/호주산	2.67	2.53	2.35	2.33
호주/미국산	1.15	1.13	1.20	1.17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1.1.3. 가격 동향

- 송아지 가격은 지난 2010년 6월 고점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12년 12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 평균 수송아지 가격(6~7개월령)은 2014년보다 18.5% 상승한 293만 원이었으며, 암송아지 가격은 2014년보다 36.5% 상승한 237만 원이었다. 송아지 가격 강세로 번식의향이 높아 2015년 우시장 평균 암소가격(600kg)은 2014년(433만 원)보다 18.8% 상승한 515만 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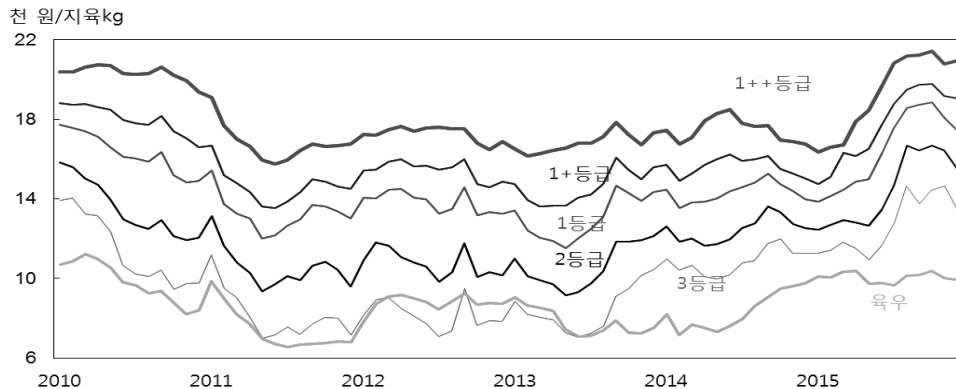
그림 23-6. 한우 산지가격



주: 한우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

- 한우고기 생산 과잉으로 2013년 7월까지 약세를 보이던 도매가격은 8월 이후 추석, 소매단계 할인행사, 수산물 대체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2~3등급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한우고기 생산 감소와 소비기반 확대로 2015년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2014년보다 15.1% 상승한 1만 6,487원/지육kg으로 나타났으며, 2~3등급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2014년보다 16~17% 상승한 1만 2,700원~1만 4,500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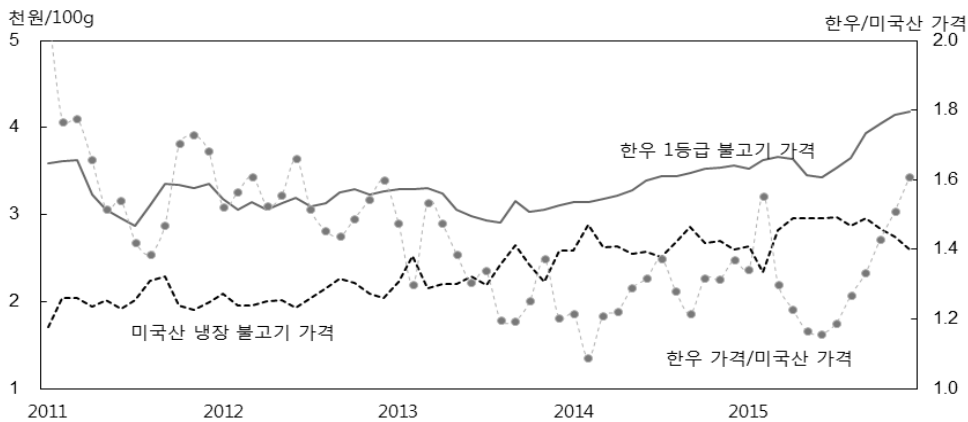
그림 23-7. 등급별 한우 도매가격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매가격 상승으로 한우 1등급 불고기 소비자 가격은 3,739원/100g으로 2014년보다 11.3% 상승하였다. 수입 단가 상승으로 미국산 냉장 불고기 가격은 2014년보다 6.0% 상승한 2,812원이었다.
- 국내산 가격 상승 폭이 커 한우고기와 미국산(냉장) 쇠고기 평균 가격비는 2014년 1.26배에서 2015년 1.33배로 확대되었다.

그림 23-8. 한우고기와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



주: 한우 1등급 불고기와 미국산 냉장 불고기의 소비자 가격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2. 쇠고기 교역 여건 전망

- 2015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2014년보다 2.2% 감소한 5,844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미국과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보다 1.3% 증가한 5,9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5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2014년보다 11.3% 감소한 104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소 사육 마릿수 증가로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6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6.3% 증가한 110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15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2014년보다 1.9% 감소한 182만 톤(평년 156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는 자국 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로 2015년보다 10.5% 감소한 163만 톤으로 예상된다.
-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5년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43.9% 증가한 60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6년에도 수입량이 늘어 70만 톤으로 예상되며, 홍콩 수입량(50만 톤)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의 수출량(110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이다(USDA).

표 23-10. 미국, 호주, 중국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미국		호주		중국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공급	생산	10,861	11,389	2,550	2,300	6,750	6,785
	수입	1,559	1,381	-	-	600	700
	계	12,420	12,770	2,550	2,300	7,350	7,485
수요	소비	11,400	11,671	735	675	7,350	7,450
	수출	1,035	1,100	1,815	1,625	-	-
	계	12,435	12,771	2,550	2,300	7,350	7,450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와 수입단가 하락으로 2016년 미국산 쇠고기의 kg당 국내 도매원가는 2015년보다 1.1% 하락한 1만 1,193원으로 추정된다.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도매원가 또한 관세인하로 2015년보다 1.0% 하락한 9,432원으로 전망된다.
- 지난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가 발효되어 관세율이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되며, 2016년은 이행년도 3차 년도에 해당된다. 2016년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수준은 160,829톤¹⁾이며, 초과 수입

1) 한·호주 FTA 협정문 6-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참조.

이행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6차년도 (2019년)	7차년도 (2020년)
쇠고기 발동수준(톤)	154,584	157,676	160,829	164,046	167,327	170,673	174,087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40%	40%	40%	40%	40%	30%	30%

량에 대한 관세율은 40%로 규정되어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급증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되어 초과 수입량에 대해 40% 관세가 부과되었다.

-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23-11. 수입 쇠고기 가격 전망

	2015		전 망			
			2016	2017	2020	2025
환율 ¹⁾ (원/US\$)	1,130		1,159	1,160	1,168	1,178
수입 단가 ²⁾ (\$/kg)	미국	7.19	7.06	6.93	6.96	7.78
	호주	5.83	5.73	5.62	5.65	6.31
관세율 ³⁾ (%)	미국	29.3	26.7	24.0	16.0	2.7
	호주	34.7	32.0	29.3	21.3	8.0
도매 원가 ⁴⁾ (원/kg)	미국	11,313	11,193	10,765	10,250	10,325
	호주	9,527	9,432	9,079	8,665	8,771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5년 수입 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6년 이후 수입 단가는 USDA 농업전망 2015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2014년 말 한·호주 FTA가 발효되어 쇠고기 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함. 호주의 경우 2014년 12월 12일자로 1차 관세인하가 되었으며, 2015년은 2년차에 접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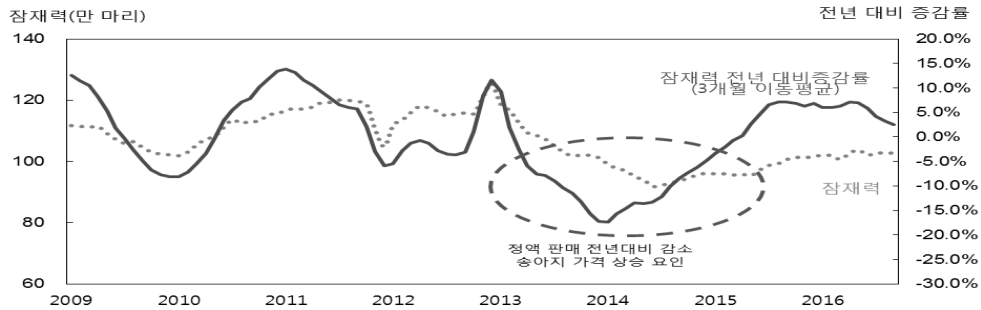
4)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1.3. 한육우 사육과 쇠고기 수급 전망

1.3.1. 번식의향

- 2015년 한우 정액 판매량은 192만 7천 스트로로 2014년보다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2016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2015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9 2016년 송아지 생산 잠재력



주: 10개월(임신기간) 전 12개월 누적 정액판매를 이용하여 해당 월의 1세 미만 송아지 생산 잠재력을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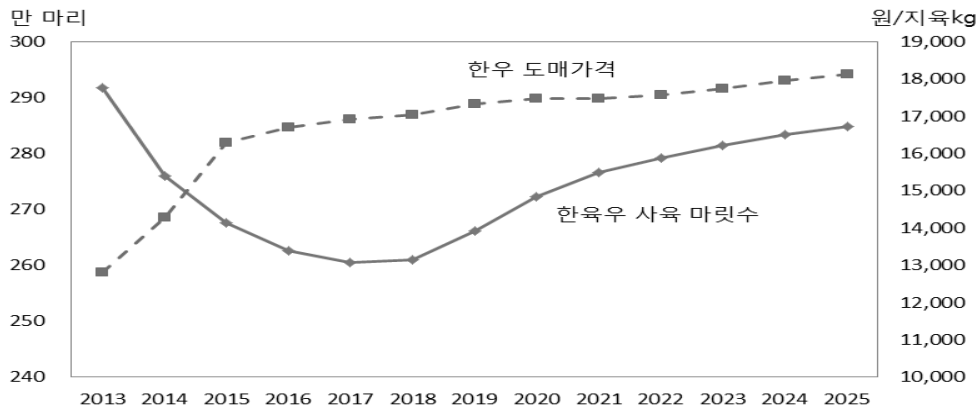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1.3.2. 쇠고기 수급 전망

가.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매시장 가격 전망

- 2세 이상 마릿수 감소로 2016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의 268만 마리보다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 사육 마릿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60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생산 감소로 2016년 전국 평균 한우 도매가격(원/kg)은 2015년 1만 6,284원(583만 원/600kg 환산)보다 2.5% 상승한 1만 6,691원(598만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7년에는 1만 6,917원(606만 원), 2020년 1만 7,465원(626만 원), 2025년 1만 8,135원(650만 원)으로 전망된다.
- 송아지 생산 감소로 2014년부터 상승 국면에 접어든 송아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농가 번식의향이 높아져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7년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번식의향이 높아 송아지 가격은 당분간 강보합세가 예상되며, 소비자의 국내산 쇠고기기에 대한 지불의향이 수입육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국내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10.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한우 도매가격 전망



주: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나. 쇠고기 수급 전망

-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6.0% 감소한 24만 톤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9년(22만 5천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25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한·미, 한·호주 FTA 발효로 쇠고기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 감소폭이 커 2016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15년보다 1.3% 감소한 10.8kg으로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2020년에는 11.5kg, 2025년 12.4kg으로 전망된다.

표 23-12.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 분	2015 (추정치)	전망			
		2016	2017	2020	2025
생 산	256	240	238	231	258
수 입	297	308	325	359	384
1인당 소비(kg)	10.9	10.8	11.1	11.5	12.4
한우 도매가격(원/kg)	16,284	16,691	16,917	17,465	18,135

주: 한우 도매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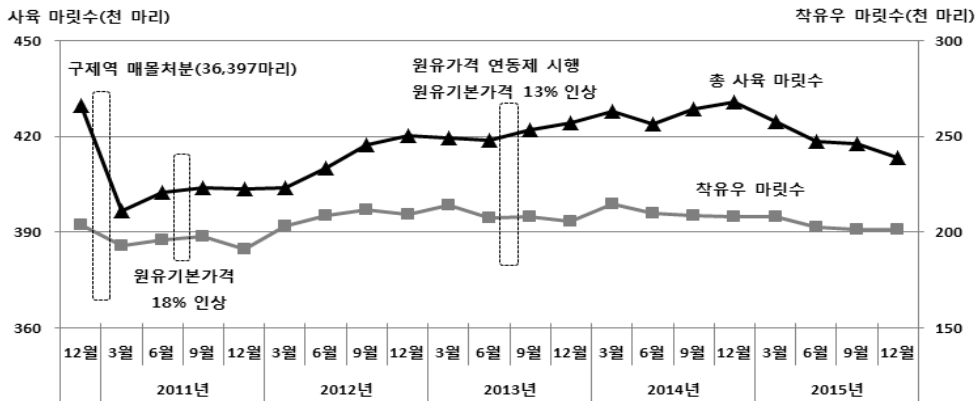
2. 젓소

2.1.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동향

2.1.1. 사육 동향

- 201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젓소 사육 마릿수가 2011년 3월 크게 감소하였다가 원유 증산 대책 추진으로 2014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분유 재고가 급증하면서 원유 감산 대책이 추진되어 젓소 사육 마릿수는 2014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 착유우 도태, 쿼터 감축 등 원유 감산 대책 추진과 육우 고기 도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4년 12월 이후 도축 마릿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원유 생산비 증가로 원유기본가격 상승 요인이 있었지만 분유 재고 문제로 기본가격이 동결되어 2015년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감소하였다.

그림 23-11. 젓소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 2015년 12월 젓소 사육 마릿수는 41만 1천 마리로 2014년 동월 대비 4.6% 감소(전분기 대비 1.6% 감소)하였으며, 가임 암소 마릿수는 2014년 동월 대비 3.5% 감소(전분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 2015년 12월 젓소 사육 농가수는 5,498호로 2014년 동월(5,693호)보다 3.4% 감소하였다. 총 사육 마릿수의 감소로 2015년 12월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동월(75.7마리)보다 1.2% 감소한 74.8마리였다.

표 23-13. 젓소 사육 동향

단위: 가구, 천 마리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9월	12월 (A)	3월	6월	9월 (B)	12월 (C)	전분기 (B/C)	전년동기 (A/C)
사육 가구수	5,717	5,693	5,587	5,632	5,633	5,498	-2.4	-3.4
50마리 미만	1,619	1,620	1,561	1,651	1,647	1,553	-5.7	-4.1
50~100마리	2,834	2,783	2,738	2,745	2,751	2,718	-1.2	-2.3
100마리 이상	1,264	1,290	1,288	1,236	1,235	1,227	-0.6	-4.9
총 마릿수	429	431	425	418	418	411	-1.6	-4.6
1세 미만	79	86	80	80	79	78	-1.6	-8.9
1~2세	80	81	82	82	81	81	-0.2	0.4
2세 이상	270	264	262	257	257	252	-2.0	-4.7
가임암소 마릿수	310	305	303	298	298	293	-1.2	-3.5

자료: 통계청

2.1.2. 원유 수급 동향

-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초과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불하는 등 원유 증산 대책이 시행되어 원유 생산량은 2012년 2분기에 201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13년에는 기준 원유량 초과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 지불이 중지되고, 저능력우 도태지연과 이른 무더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3년 8월 원유가격 인상 후 낙농가의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온화한 동절기 기온과 사료가격 안정세 등 원유 생산 여건이 개선되어 2014년 원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 원유 감산 대책 추진 이후 낙농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2015년 원유 생산량은 2014년보다 1.9% 감소한 217만 3천 톤이었다. 한편 2015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은 시장 개방 확대로 2014년 대비 10.1% 증가한 181만 톤이었다.

표 23-14.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급	전년 이월	55	13	18	92	91	229
	생산	2,073	1,889	2,111	2,093	2,214	2,173
	수입	1,135	1,713	1,414	1,586	1,644	1,810
	계	3,263	3,615	3,543	3,771	3,948	4,212
수요	소비	3,250	3,597	3,451	3,678	3,720	3,980
	차년 이월	13	18	92	91	229	232
	계	3,263	3,615	3,543	3,771	3,948	4,212

주 1) 국내 생산은 원유합격량(유업체 수유량) 기준이며,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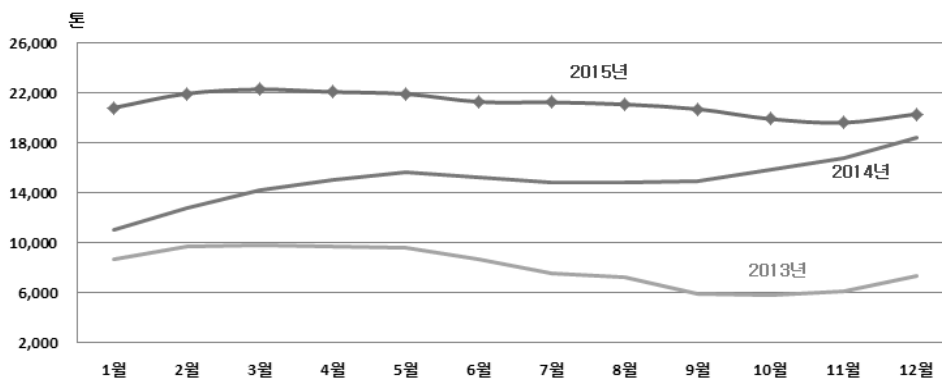
2)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낙농진흥회

- 원유 생산량은 증가하고 시유 소비는 부진하여 분유 재고량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 3월 분유 재고량은 2만 2,309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12월까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분유 재고량은 2014년 보다 많은 수준이다. 2015년(12월 기준) 분유 재고량은 2014년(1만 8,484톤)보다 10.1% 많은 2만 343톤이었다.

그림 23-12. 연도별 분유 재고량



자료: 한국유가공협회

2.1.3. 국내 원유 사용 현황

-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는 주로 음용유용(백색 및 가공유 생산)으로 사용되고, 음용유용을 제외한 원유는 가공용(시유 이외 기타 유제품생산)으로 사용된다. 2015년 국내 원유 사용 실적은 음용유용 원유량이 149만 5천 톤으로 68.8%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원유 생산량의 31.2%인 67만 8천 톤은 가공용으로 이용되었다. 음용유용 원유 사용 실적은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가공원료 지원 사업으로 가공용 원유 사용은 증가하였다.

표 23-15. 국내 원유 사용 실적

단위: 천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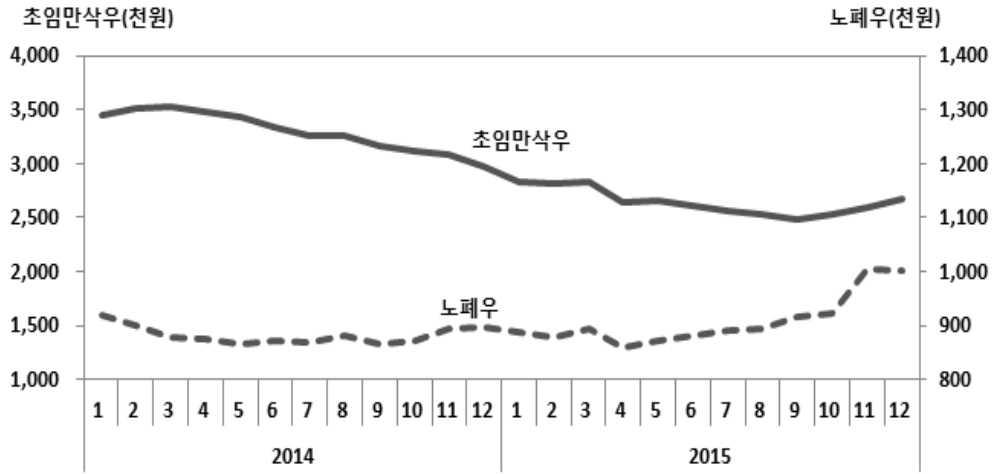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음용유용	1,569	1,541	1,483	1,578	1,587	1,540	1,495
가공용	540	532	406	533	506	674	678
계	2,110	2,073	1,889	2,111	2,093	2,214	2,173

주: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1.4. 젓소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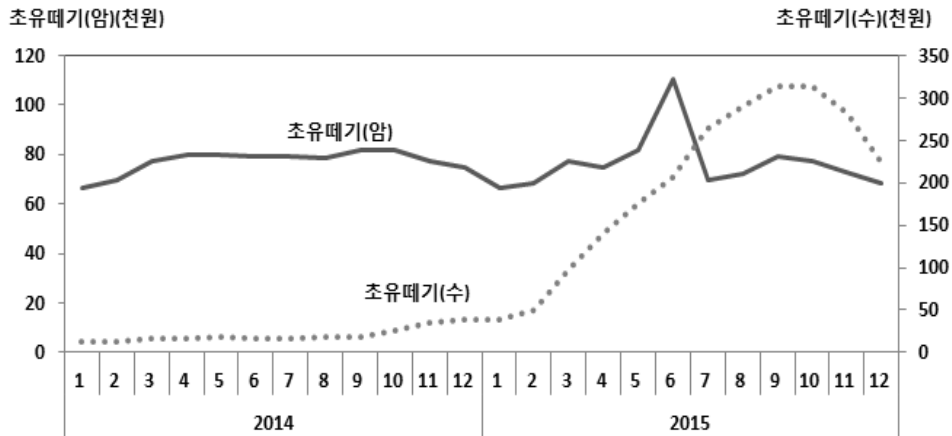
-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시행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의 젓소 사육 의향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초임만삭우의 산지가격은 2014년 3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지만, 이후 분유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산지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2015년 초임만삭우 연평균 산지가격은 264만 8천 원으로 2014년(329만 7천 원) 대비 19.7% 하락하였다.
- 반면 쇠고기 가격 호조에 따른 비육우 수요의 증가로 노폐우 연평균 산지가격은 2014년(88만 3천 원) 대비 3.0% 상승한 90만 9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초유떼기 수송아지 연평균 산지가격도 20만 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림 23-13. 초임만삭우·노페우 산지가격



자료: 농협중앙회

그림 23-14. 초유떼기 송아지(암·수) 산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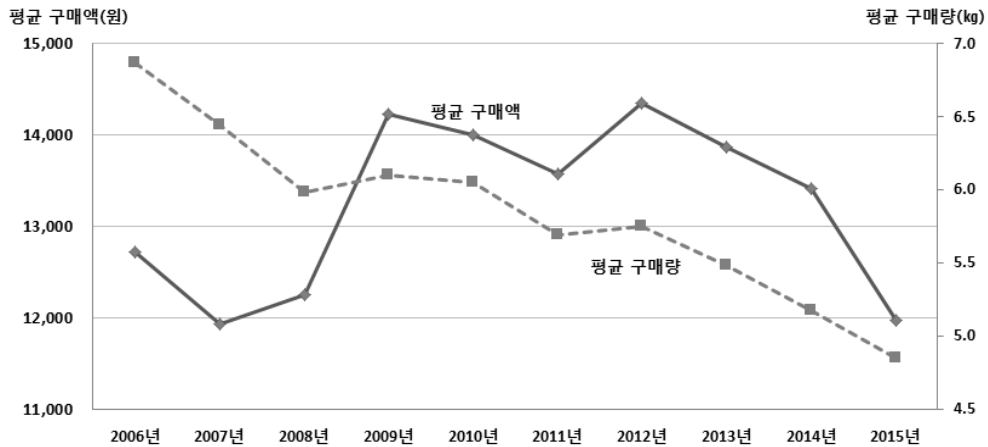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2.1.5. 우유 소비패턴 분석

- 2015년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은 4.85kg으로 2014년보다 6.3% 감소하였으며, 평균 구매금액은 1만 1,977원으로 2014년보다 10.7% 감소하였다.

그림 23-15. 가구당 평균 우유 구매량 및 구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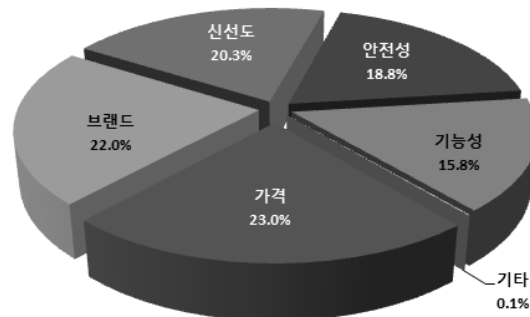


주: 2015년은 12월 6일까지 자료임.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농업관측센터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우유 선택시 가격(23.0%)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브랜드(22.0%), 신선도(20.3%), 안전성(18.8%)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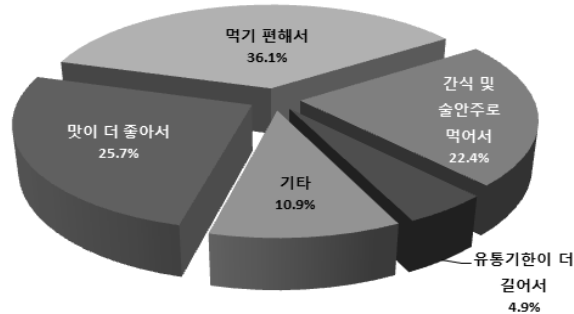
그림 23-16. 소비자의 우유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치즈 소비량 증가 추세와 관련해서 우유 소비 대신 치즈 소비량을 늘렸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약 30%에 달하는 소비자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치즈 소비가 증가한 이유로는 ‘먹기 편해서’ 36.1%, ‘맛이 좋아서’ 25.7%, ‘간식 및 술안주로 먹어서’ 22.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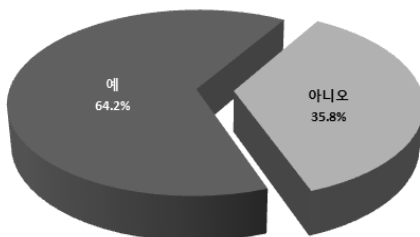
그림 23-17. 치즈 소비가 증가한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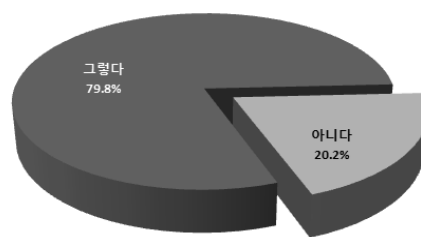
- 유제품(우유, 치즈, 발효유 등) 구매 시 원재료(원유 등)의 원산지 확인 여부를 질문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64.2%로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35.8%)보다 더 많았다.
- 유제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경우 국내산 원유 함량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9.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23-18. 원산지 표시 확인 여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그림 23-19. 국내산 원유 함량의 소비 영향 여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2. 유제품 교역여건 전망

- 2015년 유제품 수입량은 2014년보다 5.7% 증가한 23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수입량 중 치즈류와 분유류(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 일부 등 포함)가 전체 수입량의 64.9%를 차지하였다. FTA 등 수입 시장의 개방으로 유제품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EU의 쿼터제 폐지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평균 단가는 하락하였다.
- 종류별 유제품 수입량을 살펴보면, 치즈류 10만 9천 톤(2014년 대비 12.0% 증가), 분유류 4만 5천 톤(11.8% 감소), 생우유 1만 1천 톤(3.0% 증가), 아이스크림 6천 톤(0.3% 증가), 조제분유 4천 톤(23.6% 증가)이었다.
- 2015년 유제품의 평균 수입단가는 kg당 3.5달러로 2014년 대비 16.8%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류별로는 치즈 4.6달러/kg(11.0% 하락), 분유류 2.8달러(34.6% 하락), 생우유 2.2달러(17.6% 하락), 아이스크림 4.8달러(12.9% 하락), 조제분유 16.8달러(6.3% 하락)로 나타났다.
- 유제품은 주로 미국, 뉴질랜드, 호주, EU 등에서 수입된다. 이 중 미국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9.3%를 차지하였고 이어 EU가 38.4%, 뉴질랜드 8.9%, 호주 7.4%를 차지하였다.

표 23-16.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 톤, %

	미국		뉴질랜드		호주		EU		기타		계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13	79,379	37.8	31,986	15.2	18,212	8.7	63,679	30.3	16,570	7.9	209,826	100.0
2014	101,117	45.0	17,118	7.6	15,122	6.7	77,372	34.4	14,217	6.3	224,946	100.0
2015	93,396	39.3	21,165	8.9	17,681	7.4	91,402	38.4	14,214	6.0	237,859	100.0

주: 2015년 수입량은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표 23-17. 유제품 수입 동향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수입	수입량(톤)	207,124	209,826	224,946	237,859
	단가(\$/kg)	3.5	3.8	4.2	3.5
생우유	수입량(톤)	13,729	12,072	10,251	10,555
	단가(\$/kg)	2.6	2.5	2.7	2.2
발효유	수입량(톤)	124	201	317	474
	단가(\$/kg)	7.5	9.5	8.4	6.1
치즈류	수입량(톤)	77,506	85,069	97,215	108,921
	단가(\$/kg)	4.6	4.7	5.1	4.6
분유류	수입량(톤)	39,929	47,293	51,582	45,482
	단가(\$/kg)	3.3	3.9	4.3	2.8
조제분유	수입량(톤)	2,556	2,740	2,850	3,523
	단가(\$/kg)	15.9	15.4	17.9	16.8
우유 조제품	수입량(톤)	388	368	256	388
	단가(\$/kg)	12.4	13.4	13.2	8.8
아이스크림	수입량(톤)	4,939	5,359	5,849	5,868
	단가(\$/kg)	5.0	5.1	5.5	4.8
기타	수입량(톤)	67,953	56,723	56,626	62,649
	단가(\$/kg)	2.0	2.0	2.1	1.6

주: 2015년 수입량과 단가는 추정치임.

자료: 관세청

- 우리나라는 유제품 주요 수출국들인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여 협정 내용을 이행 중에 있다. 이 중 한·뉴질랜드 FTA는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치즈의 경우 7~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혼합분유는 10~15년 이후 무관세로 전환되고,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나 무관세 쿼터량(TRQ)이 1,500톤을 기본으로 매년 3%씩 증량된다.
-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쿼터 증량 및 관세 인하 등으로 향후 유제품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18. 한·뉴질랜드 FTA 협상결과(농산물)

품 목	협 상 결 과
탈·전지분유 (176%) 연유(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개 세 번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 + TRQ 제공 - 무관세쿼터(TRQ) : 1,500톤(매년 3% 증량, 10년차 1,9570 후 고정)
혼합분유(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5년 철폐
조제분유 (3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세 번에 대해 13/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터(TRQ) : 230톤(매년 2% 증량)
치 즈(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세 번에 대해 7~15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터(TRQ) : 7,000톤(매년 3% 증량)
밀크와 크림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함량 6% 이하 : 20년 철폐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17년 철폐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13년 철폐
버 터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개 세 번에 대해 10년 철폐 + TRQ 제공 - 무관세쿼터(TRQ) : 800톤(매년 3% 증량)
유 장 (4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용 유장 : 15년 철폐 사료용 : 10년 철폐

자료: 한·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표 23-19. FTA 국가별 유제품 관세변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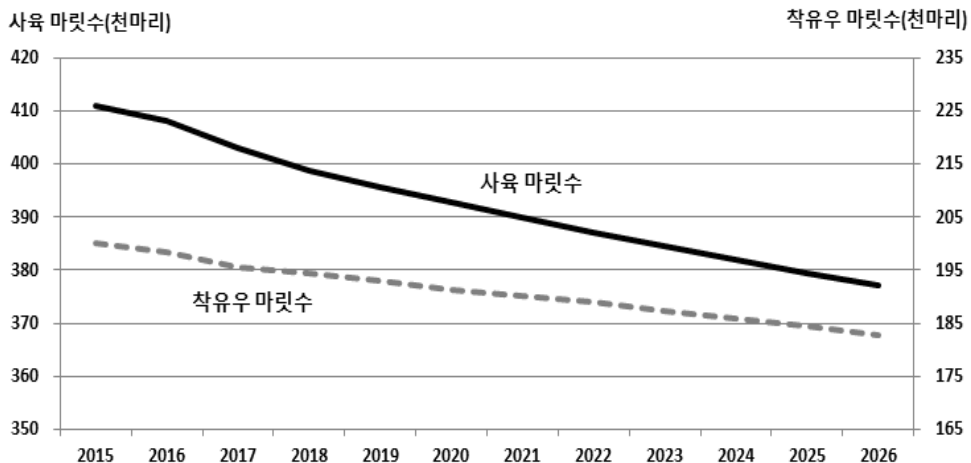
		한·뉴질랜드 FTA	한·호주 FTA	한·미 FTA	한·EU FTA
분 유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조제분유 (36%, 40%)	13/15년 철폐 + TRQ	13/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혼합분유 (36%)	10/15년 철폐	13/15년	10년	10년
치 즈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12/15년 철폐 + TRQ	20/18년 + TRQ	15년 + TRQ	15년 + TRQ
	체다치즈 (36%)	7년 철폐 + TRQ	13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버터 (89%)	10년 철폐 + TRQ	15년 + TRQ	10년 + TRQ	10년 + TRQ

자료: 한·뉴질랜드 FTA 상세설명자료, 2015.3.

2.3. 젓소 사육과 원유 수급 전망

- 2016년 1월 1일부터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 원유에 대한 패널티가 부여됨에 따라 저능력우 도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6년 젓소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0.7% 감소한 40만 8천 마리로 전망된다. 시유 소비 부진과 유제품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사육 마릿수는 2020년 39만 3천 마리, 2025년 37만 9천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6년 원유 생산량은 원유 감산 대책 추진과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5년 대비 3.5% 감소한 20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20년과 2025년 원유 생산량은 각각 204만 7천 톤과 200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유제품 수입량은 무관세 쿼터 증량과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유제품 수입량(원유환산 기준)은 2015년보다 3.3% 증가한 187만 톤으로 전망되며, 2020년 202만 6천 톤, 2025년 211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23-20. 젓소 사육 마릿수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 2016년 소비량은 2015년 대비 0.6% 증가한 400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후 소비량은 수입량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407만 5천 톤, 2025년에는 412만 3천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16년 77.8kg, 2020년 78.2kg, 2025년 78.3kg으로 전망된다.

표 23-20. 원유 수급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2015	전망		
			2016	2020	2025
사육 마릿수(천 마리)		411	408	393	379
공급	전년 이월	229	232	170	144
	생산	2,173	2,097	2,047	2,005
	수입	1,810	1,870	2,026	2,119
	계	4,212	4,199	4,243	4,268
수요	소비	3,980	4,004	4,075	4,123
	차년 이월	232	195	168	144
	계	4,212	4,199	4,243	4,268
1인당 소비량(kg)		77.6	77.8	78.2	78.3

주 1) 소비에는 수출량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입 및 이월은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3) 2015년은 추정치이며, 2016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3.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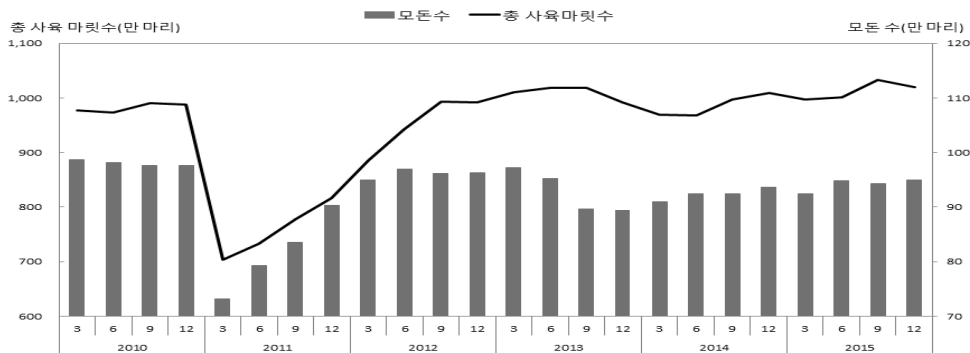


3.1.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동향

3.1.1. 사육 동향

- 2013년 9월 1,019만 마리에 달하던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 감축과 2014년 상반기 발생하였던 PED(Porcine epidemic diarrhea, 돼지유행성설사병)에 의해 2014년 6월 968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모돈 입식이 증가하여 2014년 12월 사육 마릿수는 1,009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FMD(Foot-and-mouth disease, 구제역)가 발생해 약 17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되어 2015년 3월 사육 마릿수는 997만 마리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질병 피해에서 회복되면서 9월 사육 마릿수는 1,033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모돈 입식 증가로 12월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1.0% 증가한 1,019만 마리였다. 2015년 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4년보다 증가한 1,013만 마리였다. 모돈은 2014년 대비 2.5% 증가한 94만 7천 마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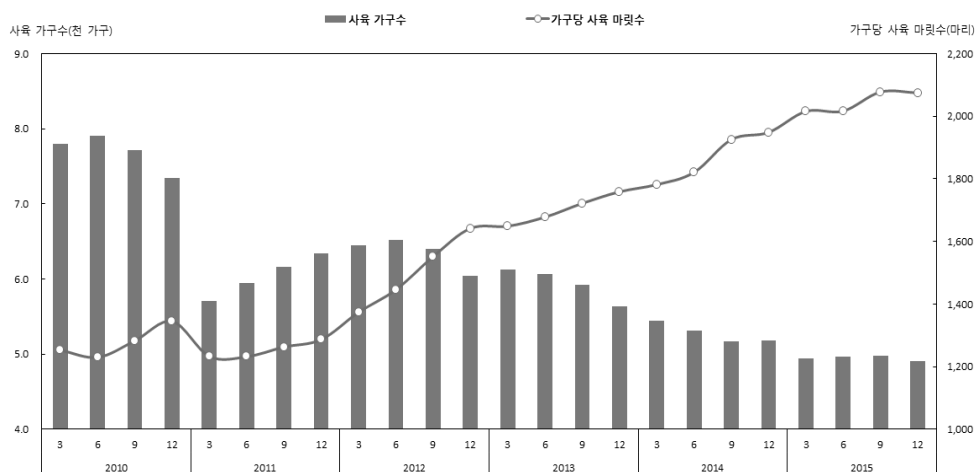
그림 23-21. 돼지 사육 마릿수와 모돈 수 추이



자료: 통계청

- 2015년 12월 기준 1,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91만 5천 마리로 2014년 12월보다 5.2% 감소하였다. 1,000~5,000마리 미만 사육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545만 마리로 2014년 동월보다 0.1% 감소하였다. 5천 마리 이상 대규모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383만 마리로 2014년 동월보다 4.1% 증가하였다.
- 2015년 12월 기준 1,000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2,054가구로 2014년 12월 대비 10.6% 감소하였다. 1,000~5,000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2,466호로 2014년 동월 대비 1.6% 감소하였다. 5천 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는 389호로 2014년 동월보다 3.7% 증가하였다.
- 5천 마리 미만 사육하는 양돈농가의 폐업이 증가하여 2015년 돼지 사육 가구수가 감소하였다. 2015년 12월 돼지 사육 가구수는 4,909호로 2014년 12월 (5,177호)보다 5.2% 감소하였다.
- 사육 가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규모화와 전업화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5년 12월 가구당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4년 12월 1,949마리보다 6.5% 증가한 2,075마리였다.

그림 23-22. 돼지 사육 가구수와 가구당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3.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15년 돼지 도축 마릿수는 모든 수 증가에 따른 자돈 생산 증가로 2014년보다 1.2% 증가한 1,588만 마리였다.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여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 83만 톤보다 1.4% 증가한 84만 2천 톤이었다.
- 국내 돼지 도매가격 상승으로 가공 원료육 가격이 상승하여 2015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4년 대비 30.7% 증가한 35만 8천 톤이었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수입량 증가로 2015년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은 2014년 21.8kg보다 8.7% 증가한 23.7kg이었다.

표 23-21.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공급	전년이월	48.0	47.5	55.2	120.0	107.7	91.2
	생산	761.1	575.6	749.7	853.8	830.2	841.5
	수입	179.5	370.4	275.2	185.0	273.9	357.9
	소계	988.6	993.5	1,080.1	1,158.8	1,211.8	1,290.6
소비	소비	940.6	937.8	958.8	1,049.3	1,118.8	1,204.8
	수출	0.5	0.5	1.3	1.8	1.8	2.0
	차년이월	47.5	55.2	120.0	107.7	91.2	83.8
	소계	988.6	993.5	1,080.1	1,158.8	1,211.8	1,290.6
1인당 소비량(kg)		19.2	18.8	19.2	20.9	21.8	23.7

주: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비중은 미국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16.3%, 칠레 7.4%, 캐나다 4.7% 순이다. 냉동 앞다리는 수입량의 67.6%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냉동 삼겹살은 수입량의 36.5%가 독일에서 수입되었다. 국가별 수입 비중은 독일, 스페인 등 EU가 51.8%, 미국, 캐나다 등 북미가 48.2%를 점유하고 있다.
- 2015년 부위별 수입량은 각각 삼겹살 4.8%, 목심 14.5%, 뒷다리 334.8%, 앞다리 65.5%, 등심 517.1% 증가하였다.

표 23-22. 우리나라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톤

구분	미국	독일	칠레	캐나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총수입량
2010	51,008	4,766	29,862	17,743	13,154	13,354	13,852	179,491
2011	143,047	27,153	24,991	47,567	18,893	17,934	16,465	370,382
2012	111,680	33,112	27,541	23,012	14,012	12,012	11,359	275,165
2013	75,720	24,572	19,470	10,430	8,627	8,429	6,403	184,966
2014	93,402	50,837	18,141	11,601	9,330	14,607	10,344	271,733
2015	129,363	58,486	26,562	16,695	15,267	15,492	8,723	357,92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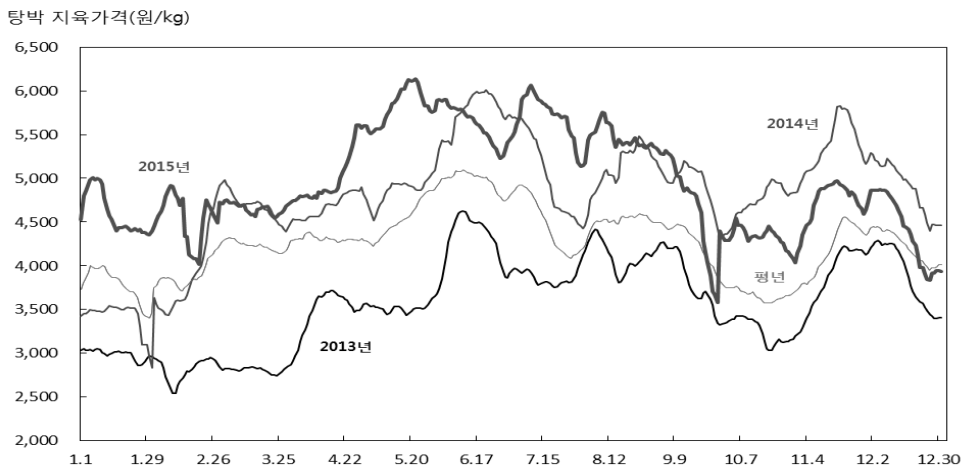
3.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15년 8월까지 돼지 지육가격은 질병 발생에 따른 생산성 저하, 이동제한 등의 생산부분의 영향과 경락 마릿수 감소,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 수요부분의 영향으로 2014년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 2015년 1월 4,798원/kg(탕박 기준)에서 시작한 돼지 지육가격은 설 명절 무렵 4,015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FMD와 PED 발생으로 등급판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5년 2월 탕박 기준 지육 도매가격은 4,717원으로 2014년 2월보다 20.9% 상승하였다. 3월은 2014년보다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하였으나, 경락 마릿수 감소와 삼겹살데이(3월 3일) 행사로 수요가 증가해 2014년 3월 수준인 4,657원이었다.
- 4월과 5월은 질병 발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이동제한으로 등급판정 마릿수가 감소하여 2014년 동월 대비 각각 7.5%, 19.2% 상승한 5,044원, 5,845원이었다. 6월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였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발생으로 외식, 나들이 및 대형마트 방문이 감소하여 2014년 동월보다 하락한 5,623원이었다. 7월과 8월은 할인행사와 경락 마릿수 감소로 각각 5,664원, 5,472원으로 2014년 동월보다 상승하였다.
- 상승세에 있던 돼지 도매가격은 9월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연초에 있었던 질병 피해에서 회복하였고, 여름에 생산이 지연되어 도축되지 못한 돼지가 출하

되면서 9월과 10월은 등급판정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9월 가격은 2014년 9월보다 2.0% 하락한 4,840원이었고, 10월은 8.9% 하락한 4,313원이었다.

- 11월 또한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2014년보다 12.4% 하락한 4,745원이었고, 12월은 평균 4,361원이었다. 따라서 2015년 평균 지육 도매가격은 2014년보다 2.9% 상승한 4,939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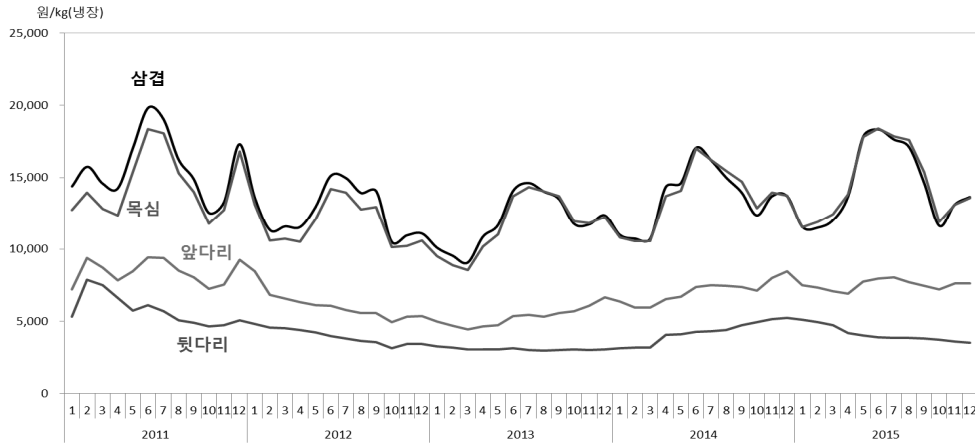
그림 23-23. 돼지 지육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로 삼겹살 및 목심, 전지 등 돼지고기의 생산량이 감소해 각 부위별로 2014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9월부터는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하락세를 보였다.
- 삼겹살은 2014년 대비 5.7% 상승한 14,391원/kg, 목심은 7.1% 상승한 14,611원, 전지 7,510원으로 6.4% 상승하였다. 2014년 목심 평균가격이 삼겹살보다 높게 형성되었고, 이 추세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그림 23-24. 부위별 가격 동향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3.1.4. 돼지고기 소비 패턴

- 2015년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2014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가구당 4주 평균 돼지고기 구매량은 2.46kg으로 2014년 대비 8.4% 증가하였다. 4주 평균 구매빈도는 2013년 1.94회에서 2014년 2.04회, 2015년 2.15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회 구매당 구매량도 2014년 1.12kg에서 2015년 1.15kg으로 증가하였다.

표 23-23. 소비자가구 4주 평균 돼지고기 소비동향

구분	2013	2014	2015
가구당 평균 구매량(kg)	2.31	2.27	2.46
구매빈도(회)	1.94	2.04	2.15
1회 구매당 구매량(kg)	1.19	1.12	1.15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015년에 돼지고기 소비량을 늘렸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지방 부위 소비 증가, 캠핑 문화 확산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 돼지고기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으로 소비량을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더 많았다.

표 23-24. 소비자의 국내산과 수입 돼지고기 소비 변화

단위: 명(%)

구분	국내산		수입	
	2014	2015	2014	2015
전년대비 증가	188(29.7)	175(28.8)	28(4.7)	40(7.0)
변동 없음	342(54.0)	326(53.6)	306(50.9)	262(45.5)
감소	103(16.3)	107(17.6)	267(44.4)	273(47.5)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15년 10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공육과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하였다. 발표 직후 돼지고기 소비를 감소시켰다는 소비자가 증가시켰다고 응답한 소비자보다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시키겠다고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23-25. WHO 발표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변화

단위: 명(%)

구분	국내산	
	WHO 발표 직후	2016
WHO 발표 전 대비 증가	64(10.4)	93(15.1)
변동 없음	450(72.9)	430(69.7)
감소	103(16.7)	94(15.2)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16년 국내산과 수입 돼지고기 소비자 구매의향을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반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구매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의 응답으로 미뤄보아 2016년 수입육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26. 2016년 돼지고기 소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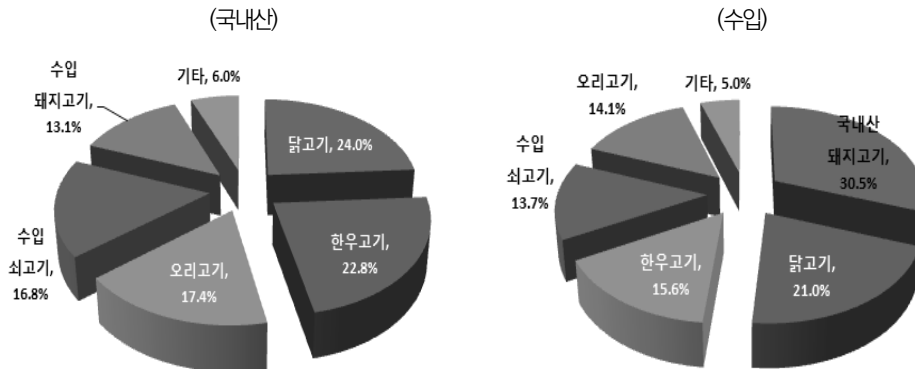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국내산		수입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년대비 증가	121(19.9)	130(21.6)	20(3.5)	20(3.6)
변동 없음	391(64.4)	374(62.2)	281(49.6)	270(48.0)
감소	95(15.7)	97(16.2)	266(46.9)	272(48.4)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국내산 돼지고기 대체육류는 닭고기 24.0%, 한우고기 22.8%, 오리고기 17.4%, 수입 쇠고기 16.8%, 수입 돼지고기 13.1%, 기타 6.0%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돼지고기 대체육류로는 국내산 돼지고기 30.5%, 닭고기 21.0%, 한우고기 15.6%, 오리고기 14.1%, 수입 쇠고기 13.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25. 돼지고기 대체재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3.2. 돼지고기 교역 전망

- 중국은 모든 수 감소로 2015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2014년보다 감소한 5,638만 톤으로 추정된다. 사료값 하락과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2016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5년 대비 0.2% 증가한 5,650만 톤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0.6% 증가한 85만 톤으로 전망된다.
- EU의 2016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0.4% 감소한 2,290만 톤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서 EU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2016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233만 톤으로 전망된다.
- 미국은 2014년 발생한 PED로 인한 생산성 하락에서 벗어나 생산량 증가가 전망된다. 2015년은 1,116만 톤으로 추정되며 2016년은 1,131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로의 수출이 증가해 2015년 대비 4.5% 증가한 237만 톤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USDA).

표 23-27. 주요국의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중국			EU			미국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공급	생산	56,710	56,375	56,500	22,533	23,000	22,900	10,370	11,158	11,314
	수입	761	845	850	-	-	-	457	520	454
	소계	57,471	57,220	57,350	22,533	23,000	22,900	10,827	11,678	11,768
수요	소비	57,169	57,200	57,140	20,381	20,662	20,582	8,650	9,340	9,409
	수출	277	250	250	2,166	2,350	2,330	2,203	2,268	2,370
	소계	57,449	57,450	57,390	22,547	23,012	22,912	10,853	11,608	11,779

주: 중국의 수입은 홍콩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미농무부(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

- 2015년 기준 돼지고기 kg당 평균 수입단가는 미국산 \$3.08, EU산 \$2.86 기타 \$2.25였다.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6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2015년보다 하락한 \$3.0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 한·EU FTA 체결 및 환율 전망치와 수입단가 등을 이용하여 2025년까지 도매원가를 추정한 결과, 2016년 미국 돼지고기(냉동)의 경우 환율은 상승하였으나 수입단가 하락과 관세 인하로 국내 도매원가는 2015년보다 하락한 3,865원/kg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냉동)의 국내 도매원가는 관세하락과 수입단가 하락으로 2015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철폐되나, 환율과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국내 도매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관세 인하로 2020년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수입단가와 환율 상승으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28. 수입 돼지고기 국내 도매원가 전망

구 분		2015	전망		
			2016	2020	2025
환율(원/US\$)		1,130	1,159	1,168	1,178
관세율 (%)	미국	5.0	0.0	0.0	0.0
	EU	14.0	11.0	2.0	0.0
	기타	20.8	16.8	3.7	3.7
수입단가 (\$/kg)	미국	3.08	3.03	3.16	3.44
	EU	2.86	2.81	2.94	3.20
	기타	2.25	2.15	2.21	2.41
도매원가 (원/kg)	미국	3,999	3,865	4,065	4,460
	EU	3,993	3,960	3,853	4,142
	기타	3,321	3,165	2,940	3,226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15년 이후 수입 단가는 미국 농무부 농업전망 2015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3.3.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수급 전망

3.3.1. 중기 선행관측

- 2015년 11월까지 모돈용 사료 생산량은 2014년 동기간 대비 3.6% 증가한 94만 3천 톤이었다. 또한 2015년 후보돈 판매는 2014년 대비 20.2% 증가하였다. 후보돈 입식과 모돈용 사료 생산량 증가로 2016년 3월 모돈 수는 2015년 3월보다 증가한 95~97만 마리로 전망된다.
- 모돈 수 증가로 2016년 3월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는 2015년 3월보다 0.3~2.3% 증가한 1,000~1,020만 마리로 전망되며, 6월 사육 마릿수는 2015년 6월보다 1.1~3.1% 증가한 1,020~1,04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비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표본농가의 3, 6월 사육의향이 2015년 동월보다 각각 4.7%, 3.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16년 1~4월 도축 마릿수에 영향을 미치는 2015년 9~11월 생산된 자돈용 사료는 2015년 동기보다 3.1% 증가한 121만 톤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사육 마릿수 증가로 1~6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2015년 동기간보다 3.2% 증가한 797만 마리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도 3.2% 증가한 42만 3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6년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하락과 수입 돼지고기 채고 누적으로 2015년보다 감소한 13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16년 상반기 돼지고기 지육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5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과 2월은 설 명절과 방학,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2015년보다 하락한 탕박 기준 kg당 4,200~4,500원으로 전망된다. 3~4월은 학교 급식 재개와 기온 상승으로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1, 2월보다 상승한 4,600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5월은 3, 4월보다 높은 5,000원으로 보이나, 2015년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은 5,300원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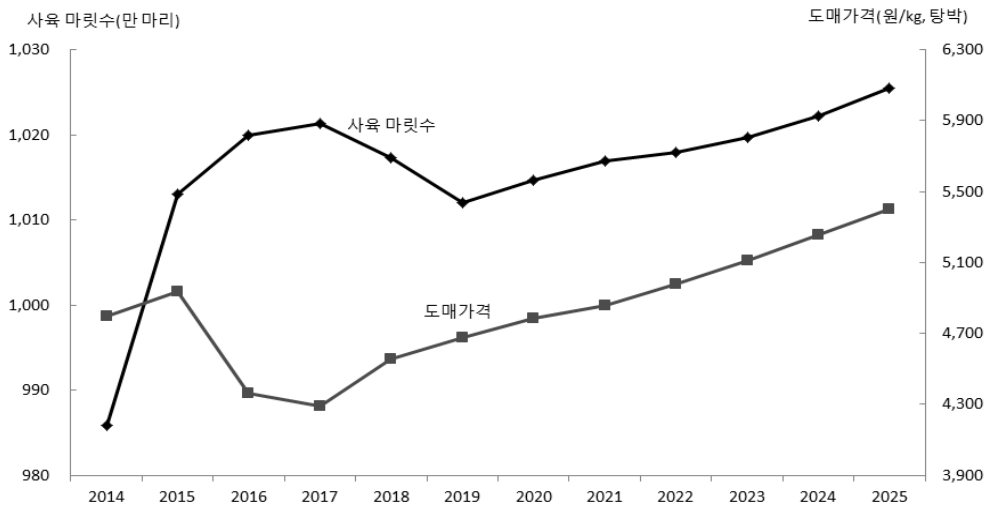
3.3.2. 장기 수급전망

- 2015년 모든 입식 증가로 2016년 연평균 모든 수는 2015년보다 증가한 95만 마리로 전망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모든 수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92만 마리, 2025년은 91만 마리로 전망된다.
- 모든 수 증가로 2016년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증가한 1,020만 마리 내외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 증가세는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2017년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나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1,030만 마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모든 및 전체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돼지 도축 마릿수는 2015년보다 증가한 1,620만 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85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돼지 도축 및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인 후 2018

~19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돼지고기 생산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5년에는 87만 7천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하고 지육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보다 감소한 26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후 FTA 타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5년 수입량은 33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축 마릿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이 증가해 2016년 돼지 연평균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4,364원, 2017년은 4,291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도축 마릿수 감소로 지육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소득 증가와 육류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 4,784원, 2025년 5,398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23-26. 돼지 사육 마릿수와 도매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표 23-29.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구 분		2015	전망		
			2016	2020	2025
공급	전년 이월	91.2	83.8	65.5	63.3
	생산	841.5	853.6	860.8	876.9
	수입	357.9	260.0	317.4	333.1
	소계	1,290.6	1,197.4	1,243.7	1,273.3
소비	소비	1,204.8	1,127.9	1,172.6	1,202.3
	수출	2.0	2.7	6.1	8.0
	차년 이월	83.8	66.8	65.0	63.0
	소계	1,290.6	1,197.4	1,243.7	1,273.3
1인당 소비량(kg)		23.7	22.2	22.8	23.1
지육가격(원/kg)		4,939	4,364	4,784	5,398

주: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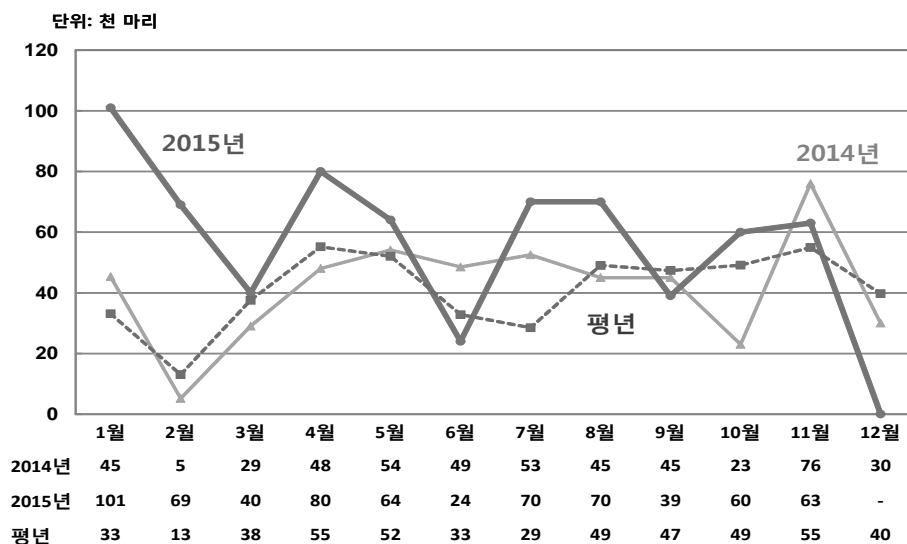
4. 산란계

4.1.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동향

4.1.1. 산란계 사육 동향

- 2015년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실용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4년(6,509만 마리)보다 7.8% 증가한 7,019만 마리였다.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은 5,233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여 계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 2015년 산란 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신규 부화장 진입으로 2014년(50만 2천 마리)보다 35.6%, 평년(49만 2천 마리)보다 38.1% 증가한 68만 마리였다.

그림 23-27. 산란종계 입식 마릿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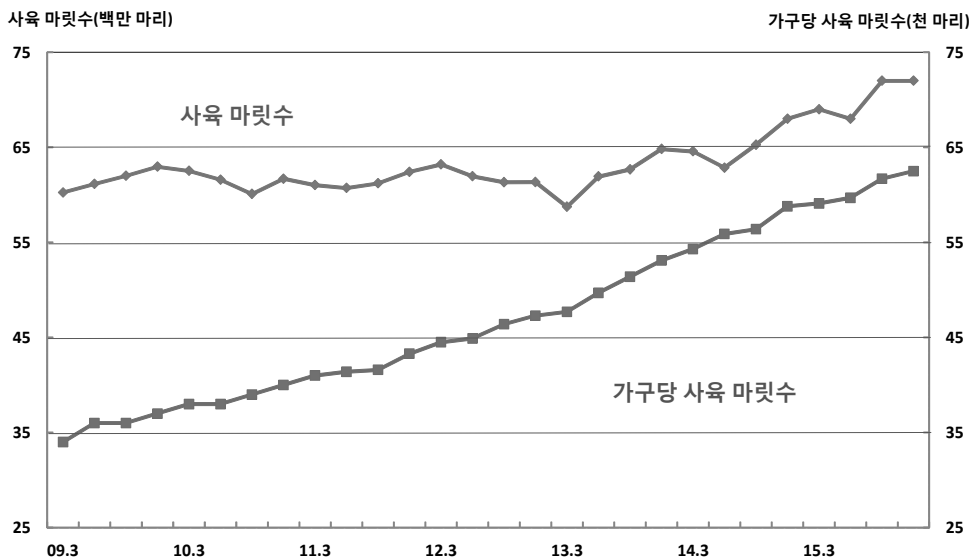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 입식 마릿수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대한양계협회

- 2015년 연평균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2014년(369만 3천 마리)보다 증가한 385만 2천 마리였으며, 산란 실용계 병아리의 총 입식 마릿수는 4,623만 마리로 2014년(4,432만 마리)보다 4.3% 증가하였다.
- 2015년 1~11월 도태 마릿수는 계란 산지가격 하락으로 2014년(2,472만 마리)보다 23.0% 증가한 3,041만 마리였다.
- 2015년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1,149가구로 2014년(1,170가구)보다 1.8%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사육 마릿수는 6만 2천 마리로 2014년(5만 8천 마리)보다 6.8% 증가하였다.
- 소규모 영세농들의 폐업증가로 인해 전체 사육 가구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다. 2015년 9월 기준 5만 마리 미만 사육 가구수는 2014년 12월보다 5.2% 감소하였으나, 산란계 사육 규모화로 5만 마리 이상 사육 가구수는 10.1%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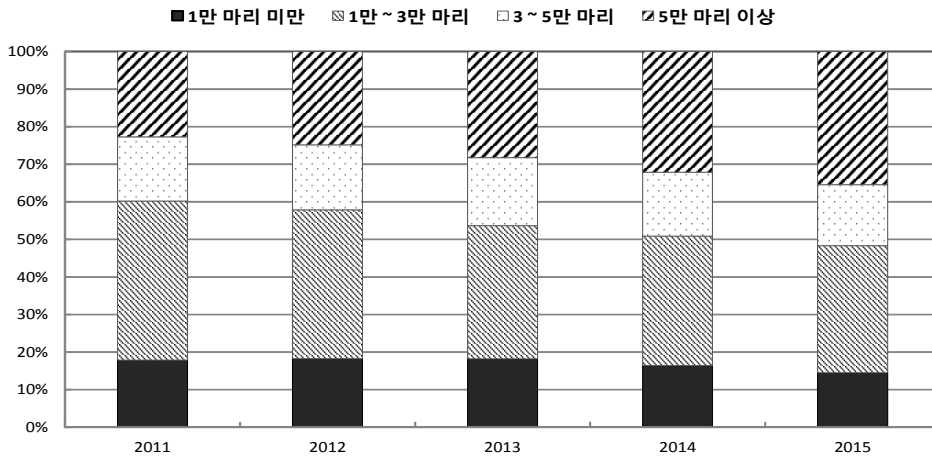
그림 23-28. 산란계 사육 마릿수 및 가구당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 규모별 산란계 사육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5만 마리 이상 사육가구는 산란계 사육 가구수의 32.1%를 차지했으나, 2015년 9월 35.5%로 비중이 확대되었다. 3만 마리 미만 사육가구는 2014년 12월 산란계 사육 가구수의 50.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9월 48.3%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림 23-29. 산란계 규모별 사육 가구수 비중



자료: 통계청

4.1.2. 계란 수급 동향

- 2015년 계란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2014년보다 3.1% 증가한 67만 7천 톤이었다. 2015년 수입량은 국내 계란 생산량의 증가로 2014년보다 26.1% 감소한 1,703톤이었다. 2015년 1인당 소비량은 2014년보다 3.1% 증가한 13.4kg이었다.

표 23-30. 계란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생산	579.3	577.5	573.1	604.5	629.1	657.6	677.7
수입	1.7	2.1	2.9	2.8	2.5	2.3	1.7
1인당 소비량(kg)	11.9	11.9	11.6	12.1	12.6	13.0	13.4

주: 2015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무역협회

- 2015년 1~11월 조란(구운란) 및 계란 가공품의 총 수입량은 2014년 동기간(2,176톤)보다 27.8% 감소한 1,572톤이었다. 국내 소비량 중 수입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2014년 기준)로 매우 낮으며, 신선란은 수입되고 있지 않다.

표 23-31. 계란 가공품 수입통관 실적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1월)
총수입	금액(천\$)	10,582	11,688	12,772	15,235	14,142	11,347
	수입량(톤)	2,118	2,892	2,771	2,494	2,332	1,572
조란	금액(천\$)	2,259	1,419	1,893	2,291	2,378	2,275
	수입량(톤)	543	385	376	370	394	427
난백	금액(천\$)	4,687	5,340	5,151	7,992	7,940	7,452
	수입량(톤)	568	623	547	704	660	598
난황	금액(천\$)	3,636	4,929	5,728	4,952	3,824	1,620
	수입량(톤)	1,097	1,560	1,677	1,226	1,278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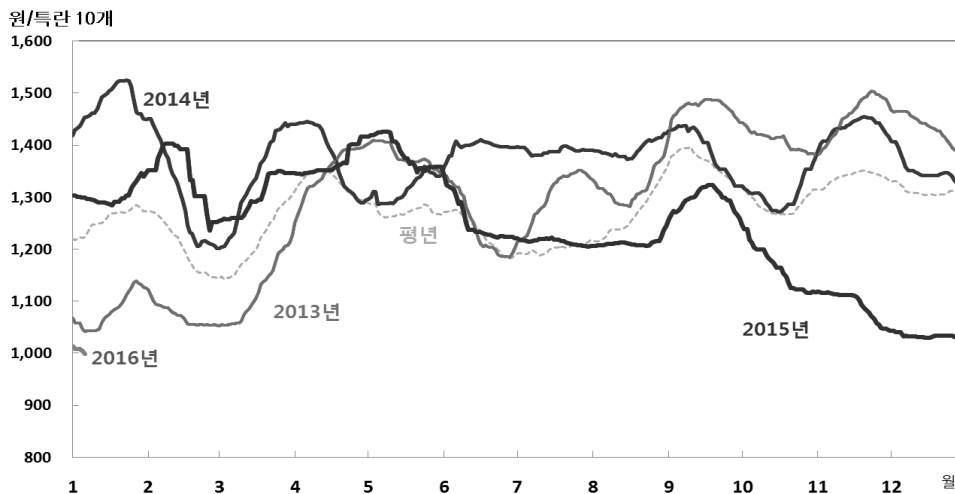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5년 1~11월 조란 수입량은 2014년 동기간(376톤) 대비 13.6% 증가한 427톤이었으며, 중국산이 90.0% 이상 수입되었다. 계란 가공품 중 난백 수입량은 2014년 동기간(610톤)보다 2.0% 감소한 598톤이었다. 미국산 난황의 수입량은 2014년 동기간(1,190톤)보다 54.0% 감소한 547톤이었다.
- 2015년 1~11월 미국산 조란(구운란) 및 계란 가공품 총 수입량 비중은 26.4%로 2014년(52.0%)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중국(36.9%)과 EU(23.0%)는 2014년보다 각각 27.0%, 8.0% 증가하였다.
- 2014년 12월 한-중 FTA가 실질 발효되었으나, 조란(관세율 20%), 난황(관세율 20%), 난백(관세율 10%) 등은 모두 양허 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계란 수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1.3. 계란 가격 동향

- 사육 마릿수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5년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1,373원/특란 10개)보다 8.8% 하락한 1,252원(특란 10개)이었다.
- 2015년 1~4월, 설 명절과 부활절 수요가 있었으나 계란 생산량 증가로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 동기 대비 3.2% 하락한 1,327원(특란 10개)이었다. 5월 계란 산지가격은 대형마트 할인행사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2014년보다 5.6% 상승하였다. 6~8월은 계란 생산 가담 신계군이 증가하여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 동기간보다 11.4% 하락하였다.
- 2015년 9~10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산란 성계 도태가 지연되어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보다 8.0% 하락한 1,241원(특란 10개)이었다. 2015년 3월 이후 과도하게 입식되었던 실용계 병아리가 계란 생산에 가담하면서 10월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11~12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2014년보다 23.2% 하락한 1,071원(특란 10개)이었다.

그림 23-30. 계란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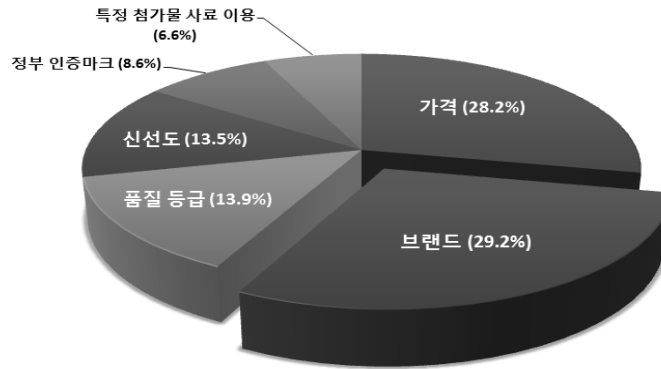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14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협중앙회

4.1.4. 계란 소비패턴 분석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016년에 2015년보다 계란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은 37.0%, 줄이겠다는 응답은 3.0%로 계란 소비를 증가하려는 소비자가 더 많았다. 계란 소비 증가의 원인은 ‘구입과 요리가 용이’(58.8%),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35.3%)로 나타났다.
- 2016년에 계란 소비를 줄이는 이유로는 ‘콜레스테롤 등 건강상의 이유’(45.2%), ‘계란의 위생 상태와 신선도 의심’(21.0%)이 선택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를 선택한 소비자가 2015년보다 7.6%p 증가하여 영양성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계란 선택 시 신선도(39.8%), 가격(18.4%), 정부의 인증마크(17.5%)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2016년 조사에서는 브랜드(29.2%), 가격(28.2%), 품질등급(13.9%), 신선도(13.5%)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도를 선택한 소비자의 70.0%는 냉장 유통(진열) 또는 유통기한(제조일자)을 기준으로 신선도를 판단하였다.
- 계란 구매 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증으로는 유기농(36.0%)이 가장 많았으며, 무항생제(33.1%), 동물복지(12.2%), HACCP(9.7%)이 그 뒤를 이었다.
- 가공된 계란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54.7%이었다. 소비자들의 가공란에 대한 인식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섭취 가능한 제품’(49.6%)이 가장 많았으며, ‘화학첨가물이 포함되어 안전하지 않음’(19.0%), ‘신선도가 낮은 오래된 제품’(12.6%)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1. 소비자의 계란 선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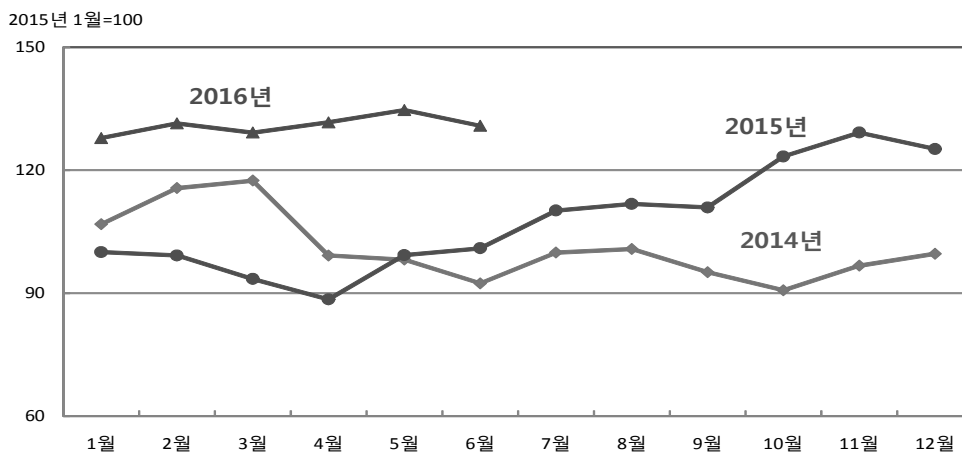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4.2. 산란계 사육과 계란 수급 전망

- 2014년 7월~2015년 12월 산란 종계 입식 마릿수는 95만 2천 마리였다. 이를 이용하여 2016년 상반기 산란 실용계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1분기는 2015년보다 32.8%, 2분기는 3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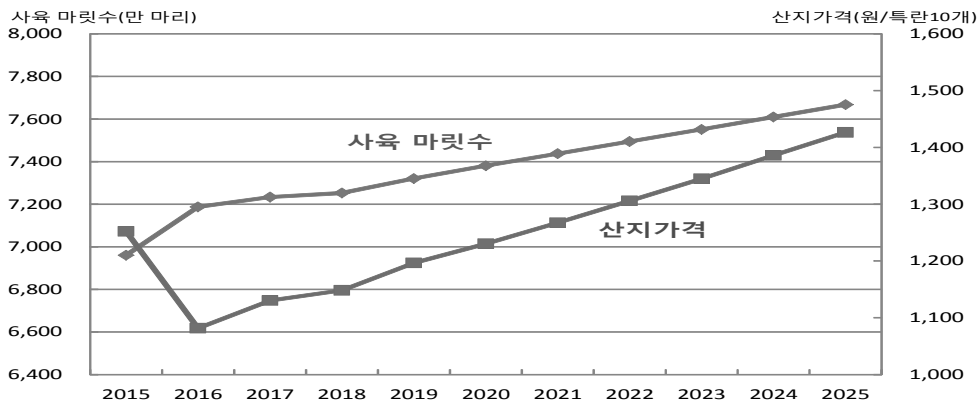
그림 23-32.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추정치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6년 계란 생산에 가담할 2014년 8월~2015년 12월까지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7.6% 증가하여,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2.4% 증가한 7,190만 마리로 전망된다.
- 산란 실용계 병아리 입식 증가로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가 증가하여 2016년 계란 생산량은 2015년 대비 3.7% 증가한 70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인해 2016년 계란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12.9% 하락한 1,091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 2016년 1인당 계란 소비량은 2015년보다 3.7% 증가한 13.9kg으로 전망되며, 이후 계란 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된다.

그림 23-33.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산지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표 23-32. 계란 수급 및 가격 전망

구분	단위	2015	전망		
			2016	2020	2025
사육 마릿수	만 마리	7,019	7,190	7,412	7,727
계란 생산량	천 톤	677.7	702.9	726.1	756.7
1인당 소비량	kg	13.4	13.9	14.2	14.6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 10개	1,252	1,091	1,241	1,490

주: 사육 마릿수는 분기별 평균치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5. 육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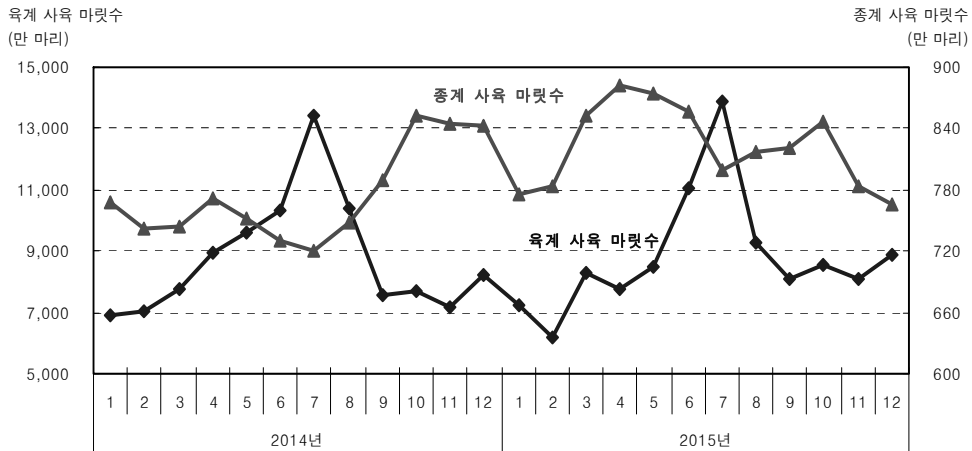


5.1.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동향

5.1.1. 사육 동향

- 2014년 11월과 12월 영국과 미국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발생으로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계획되었던 원종계(GPS: Grand Parental Stock) 수입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2015년 하반기 육용종계(PS: Parents Stock) 병아리 생산 감소가 예상되었다.
- 하반기 육용종계 부족 가능성 때문에 원종계 도태가 늦춰졌으며, 상반기 종계 입식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7~12월 프랑스 등에서 신규로 55만 3천 마리의 종계가 직수입되었다. 그 결과 원종계 입식 지연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인 700만 2천 마리였다.
- 2015년에는 계열업체들이 도계라인을 증설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유지 및 확대 등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업체들의 하반기 종계 부족 우려와 닭고기 생산 증가 경쟁으로 인해 종계 생산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2015년 평균 종계 사육 마릿수는 2014년 대비 5.9% 증가한 821만 마리로 추정된다.
- 종계 사육 마릿수의 증가는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연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4년에 비해 6.3% 증가한 8,907만 마리였다.

그림 23-34. 월 평균 종계 및 육계 사육 마릿수



주: 매년 3, 6, 9, 12월은 통계청 발표치임.

자료: 통계청, 대한양계협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 2015년 1~11월 육계 생산지수를 구성하는 4개 요소 중 육성률, 출하일령, 사료요구율은 2014년 동기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좋아져, 계열사 평균 육계 생산지수는 309.8로 2014년(298.1)보다 3.9%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3. 평균 육계 생산성(1~11월)

	육성률(%)	출하일령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kg)	생산지수
2015년	96.5	30.9	1.57	1.59	309.8
2014년	96.4	31.2	1.56	1.62	298.1
증감률(%)	0.5	-1.0	0.4	-1.8	3.9

주: 생산지수=육성률×출하체중/출하일령×사료요구율

자료: 한국육계협회

5.1.2. 닭고기 수급 동향

- 육계 사육 마릿수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2015년 도계 마릿수는 2014년 대비 8.6% 증가한 9억 6,127만 마리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도 2014년보다 크게 증가한 57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 주요 닭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HPAI 발생으로 2014년 12월 20일부로 미국산 닭, 오리, 병아리, 식용란, 종란 등의 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우리나라 수입량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미국산 닭고기를 대체하였다. 2015년 닭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17.5% 감소한 11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15년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 1인당 소비 가능한 닭고기의 양은 13.0kg으로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23-34. 닭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공 급	계	547.4	596.5	609.1	608.9	672.2	695.8
	생산	435.5	456.5	463.7	473.4	527.9	573.2
	수입	105.8	130.9	130.4	126.7	141.4	116.7
	이월	6.1	9.1	15.0	8.8	2.9	5.9
수 요	계	547.4	596.4	609.1	608.9	672.2	695.8
	소비	522.3	566.2	597.4	578.5	647.0	661.3
	수출	16.0	15.3	20.9	26.8	19.3	25.4
	재고	9.1	15.0	8.8	2.9	5.9	9.1
1인당 소비량(kg)		10.7	11.4	11.6	11.5	12.8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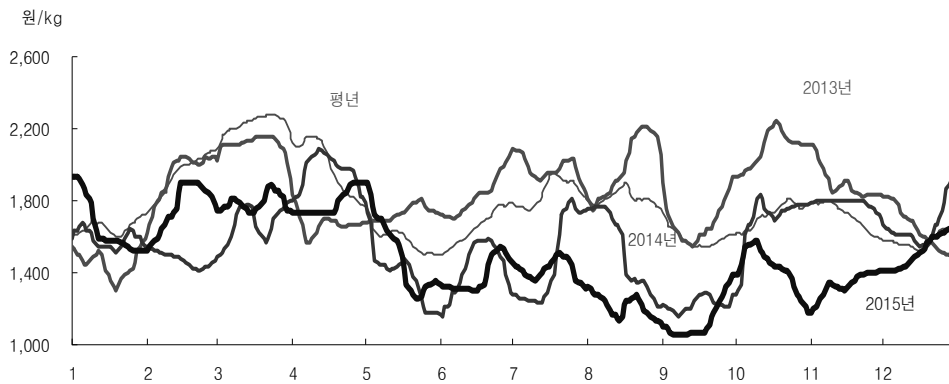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3. 육계 가격 동향

-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업계의 자율적인 종계 감축사업으로 육계 산지가격은 1,840원/kg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육계 350만 마리, 종계 48만 마리, 원종계 16만 마리, 종란 1,000만 개 이상 등이 매몰처분 되었음에도 육계 산지가격은 2013년보다 14.5% 하락하였다. 2014년 9월부터 계열업체의 구매비축사업이 시행되었지만, 공급과잉으로 인한 산지가격 하락을 막지는 못하였다.

- 2015년에는 닭고기 공급 증가와 소비정체로 육계 산지가격이 2014년보다 크게 하락하였다. 2015년 평균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2014년(1,574원)보다 5.7%, 평년보다는 17.4% 하락한 1,484원이었다.
- 도계 마릿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은 2014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닭고기 수요는 공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닭고기 수요가 정체되었다.
- 2015년 육계 산지가격은 연중 가장 높은 7~8월 여름철 가격조차도 1,500원 이하에서 형성되었으며, 9월에는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1,118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23-35.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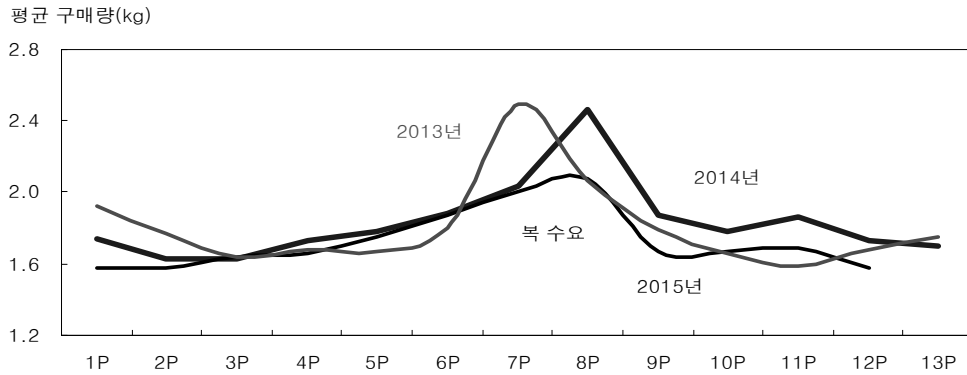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0~2014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농협중앙회

5.1.4. 닭고기 소비 패턴

- 2015년 닭고기 가정내 소비는 2014년 동기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으로 연중 닭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여름철에 가정내 소비는 2014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가구당 4주 평균 구매량은 2014년(1.84kg)보다 6.1% 감소한 1.73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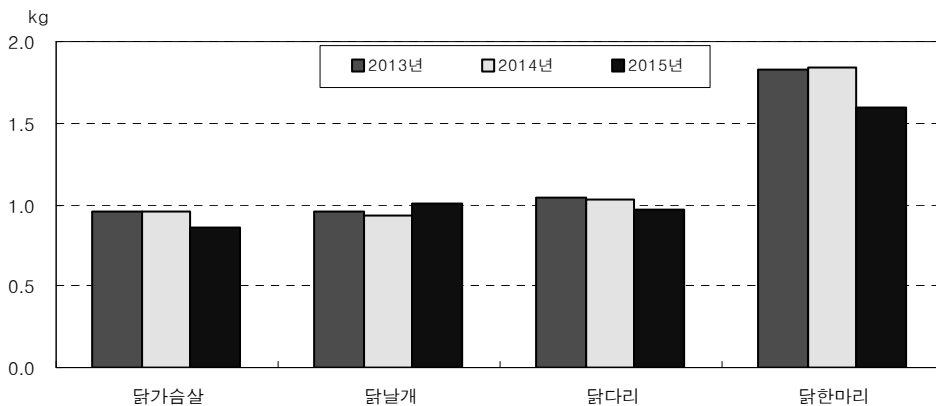
그림 23-36.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구매량 변화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 2015년 4주 평균 가구당 닭날개 구매량은 2014년 대비 증가하였고, 닭가슴살, 닭다리, 닭한마리 구매량은 감소하였다. 4주 평균 가구당 닭날개 구매량은 2014년 동기간의 0.94kg보다 7.1% 증가한 1.00kg으로 나타났다. 반면, 닭가슴살은 2014년(0.96kg) 대비 10.9% 감소한 0.86kg, 닭다리 구매량은 2014년 (1.03kg)보다 5.7% 감소한 0.97kg, 닭한마리는 2014년(1.85kg)보다 13.4% 감소한 1.60kg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7. 4주 평균 가구당 닭고기 부분육 구매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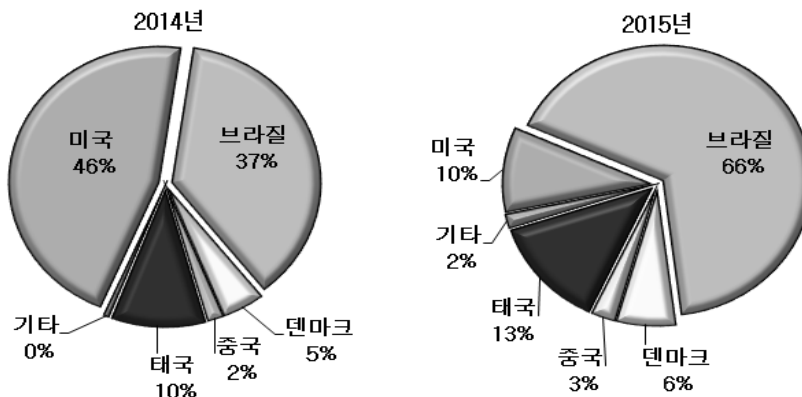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5.2. 닭고기 교역 여건 전망

- 수입 닭고기는 주로 냉동 부분육이며, 가공육도 일부 수입된다. 냉동 부분육은 닭가슴살과 장각으로 수입되어 가슴살은 통조림용 육가공제품의 원료육으로 사용되며, 장각은 국내에서 발골되어 닭강정 등 프랜차이즈와 닭갈비 식당 등으로 유통된다.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냉동 닭고기는 대부분 부분육이며, 지육형태의 미국산 닭고기와 정육형태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덴마크와 호주에서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미국 내 HPAI 발생으로 인한 국내 수입금지 조치로 2015년 11월까지 미국산 냉동 닭고기 수입량은 2014년보다 93.0% 감소한 4,723톤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산 닭고기가 미국산을 대체하며 2014년 동기 간 대비 64.8% 증가한 8만 6,309톤이 수입되어 냉동 닭고기 수입 중 90.6% (검사실적 기준)를 차지하였다.
- 2015년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국가별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브라질 66%, 미국 10%, 태국 13%, 덴마크 6%, 중국 3% 등이었다. 브라질산 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보다 29%p 증가한 반면,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은 36%p 감소하였다.

그림 23-38. 우리나라의 국가별 닭고기 수입 비중



주: 2015년은 11월까지의 누적치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6년 세계 소비량 증가로 주요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닭고기 생산량은 2015년 대비 2.2% 증가한 1,837만 톤, 브라질은 3.1% 증가한 1,348만 톤으로 전망되고, EU는 2015년보다 2.3% 증가한 1,085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5년보다 소폭 증가한 1,31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6년 세계 닭고기 생산량은 2015년보다 1.6% 증가한 8,934만 톤으로 전망된다(USDA).
- 2016년 국가별 닭고기 수출량의 경우, 브라질이 2015년보다 3.7% 증가한 388만 톤, 미국은 7.7% 증가한 322만 톤, EU는 3.5% 증가한 119만 톤으로 전망된다. 반면 태국의 닭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1.7% 감소한 57만 톤으로 전망되지만, 2016년 세계 닭고기 수출량은 2015년보다 4.5% 증가한 1,069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입량의 경우 일본은 88만 톤으로 2015년보다 2.8%, 사우디아라비아는 85만 톤으로 5.6% 감소하지만, 멕시코와 EU의 수입량은 각각 1.3%,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35. 주요국의 닭고기 수급 및 수출입 전망

단위: 천 톤

구분	생산량			구분	소비량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미국	17,966	18,365	2.2	미국	14,996	15,233	1.6
브라질	13,080	13,480	3.1	중국	12,880	12,985	0.8
중국	13,025	13,100	0.6	EU	10,160	10,375	2.1
EU	10,600	10,845	2.3	브라질	9,344	9,604	2.8
기타	33,273	33,546	0.8	기타	38,896	39,179	0.7
계	87,944	89,336	1.6	계	86,276	87,376	1.3

구분	수출량			구분	수입량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5년	2016년	증감률(%)
브라질	3,740	3,880	3.7	일본	900	875	-2.8
미국	2,990	3,221	7.7	사우디	900	850	-5.6
EU	1,150	1,190	3.5	멕시코	760	770	1.3
태국	580	570	-1.7	EU	710	720	1.4
기타	1,771	1,827	3.2	기타	5,369	5,478	2.0
계	10,231	10,688	4.5	계	8,639	8,693	0.6

주: 2015년은 추정치, 2016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FAS,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Oct, 2015)

- 2016년 주요 닭고기 수출국들의 수출량은 2015년보다 증가하고(USDA),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IHS Global Insight).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인 미국과 EU산 닭고기 관세가 추가적으로 인하되어, 국내 수입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미, 한·EU FTA 체결 및 IHS Global Insight의 환율 전망치와 관세율 변화, 수입단가 등을 이용하여 2025년까지 국가별 도매원가를 추정한 결과, 관세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으로 2016년 미국과 덴마크산 닭고기 국내 도매원가는 2015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미국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kg당 2,129원, 덴마크산 3,177원으로 전망된다.
- 2016년 브라질산 닭고기는 환율과 수입단가 상승, 현행 관세율 유지로 국내 도매원가가 2015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브라질산 닭고기 도매원가는 4,071원/kg으로 예상된다.
- 2016년 이후 닭고기 수입단가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도매원가는 2025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과 덴마크산 닭고기의 도매원가는 지속적인 관세하락에도 불구하고 2025년 2,339원/kg, 3,448원/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관세유지 영향으로 미국산과 덴마크산 닭고기 도매원가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져, 2025년에 4,879원/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내 HPAI 발생으로 미국산 닭고기 수출 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전망치 이하의 가격으로 미국산 닭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

표 23-36. 수입 닭고기 가격 동향과 전망

구분	2015		전망		
			2016	2020	2025
환율 (원/US\$)	1,130		1,159	1,168	1,178
수입단가 (\$/kg)	미 국	1.5	1.5	1.6	1.8
	브라질	2.7	2.7	2.9	3.2
	덴마크	2.2	2.3	2.4	2.7
관세율 (%)	미 국	12	10	2	0
	브라질	20	20	20	20
	덴마크	10	8	0	0
도매원가 (원/kg)	미 국	2,088	2,129	2,132	2,339
	브라질	3,927	4,071	4,369	4,879
	덴마크	3,100	3,177	3,248	3,448

주 1) 2015년 이후 환율은 IHS Global Insight 전망치임.

2) 2015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2015년 이후 수입단가는 미국 농무부 농업전망 2015 전망치를 이용하여 추정함.

3) 미국과 덴마크는 FTA 이행으로 관세율 20%를 2012년(덴마크는 2011년)부터 10년에 걸쳐 철폐함.

4) 브라질은 현행 관세율 그대로 유지함.

5) 도매원가는 국제가격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6) 미국산 도매원가는 지육, 브라질은 정육 가격임.

5.3. 육계 사육과 닭고기 수급 전망

5.3.1. 중기 선행관측

- 2015년 상반기 종계 입식이 2014년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6년 병아리 생산 및 육계 사육은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용종계 입식 마릿수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6년 1~6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지수는 2015년 동기간보다 14.9%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6년 1~3월 잠재력 지수는 2015년 동월에 비해 각각 22.3%, 23.6%, 22.7% 높게 나타났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점차 증가폭이 축소되어, 6월에는 2015년 동월 수준으로 추정된다.
-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2016년 상반기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3-37. 병아리 생산 잠재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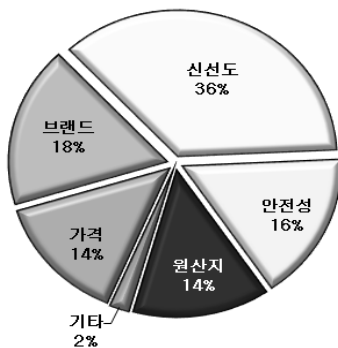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6년	122.3	118.9	115.4	112.8	114.6	115.7
2015년	100.0	96.2	94.0	99.3	108.2	114.7
증감률(%)	22.3	23.6	22.7	13.6	6.0	0.9

주: 육용 종계 생산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7개월 전 10개월 누적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2015년 1월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100으로 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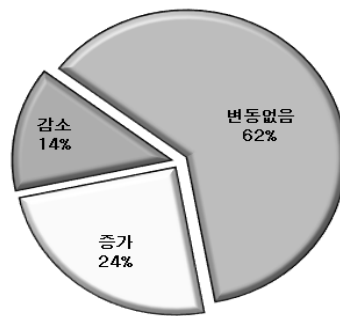
- 소비자 조사 결과, 닭고기 선택기준은 신선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선도는 전체 응답 중 36%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브랜드 18%, 안전성 16%, 원산지와 가격이 14%로 나타났다.
- 2016년 연평균 가구당 닭고기 소비량을 2015년보다 증가시키겠다는 응답은 24%였으며, 감소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2015년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하겠다는 응답은 62%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2016년 닭고기 수요는 2015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 2016년 8월(5~2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개최되지만 우리나라와 시차가 커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39. 닭고기 선택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그림 23-40. 닭고기 수요 변화



- 닭고기 수요증가 이유로는 ‘닭고기가 맛있기 때문에’가 45%로 가장 많았으며, ‘타 육류보다 지방이 적어’ 27%, ‘저렴한 가격’ 2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소 이유로는 ‘육류소비가 건강에 해로워서’ 45%로 나타났으며, ‘잘 먹지 않아서’, ‘가격이 비싸서’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41. 닭고기 수요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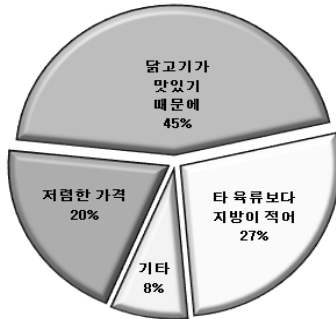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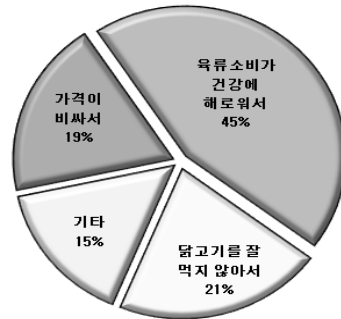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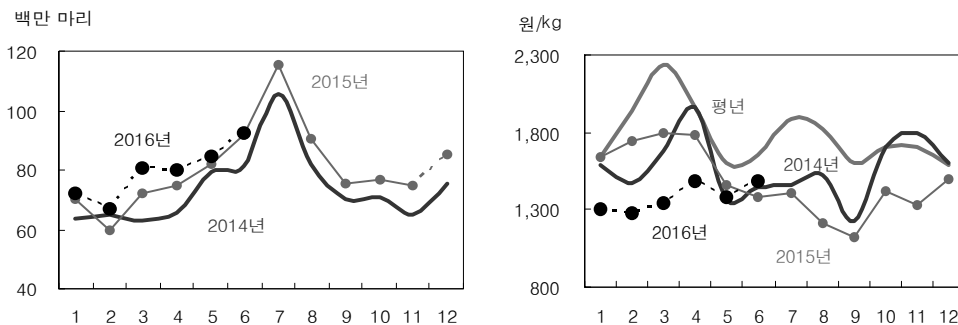
그림 23-42. 닭고기 수요감소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16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2015년 동기간보다 5.7% 증가한 4억 7,627만 마리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 2~3월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두 자릿수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 증가로 상반기 닭고기 공급량은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상반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2015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상반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1,300~1,500원/kg으로 2015년 동기간 대비 8~2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43. 2015년 상반기 도계 마릿수 및 육계 산지가격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 및 전망치

5.3.2. 중장기 전망

- 2015년 상반기 종계 입식 마릿수 증가와 도태 감소로 2016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2015년보다 높게 추정된다. 계열업체 닭고기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호흡기증후군 발생 등으로 감소하였던 닭고기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도계 마릿수는 2015년보다 2.3% 증가한 9억 8,375만 마리로 추정된다(연평균 육계 사육 마릿수는 2015년 대비 2.5% 증가한 9,132만 마리).
- 향후 소득증가에 따른 육류 소비량 증가로 닭고기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육계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억 12만 마리, 2025년 1억 693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16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사육 및 도계 마릿수 증가로 2015년보다 2.3% 증가한 5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수입량(통관 기준)은 미국산과 태국산 닭고기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보다 16.9% 증가한 13만 7천 톤으로 추정된다.
- 국내 닭고기 생산량 증가와 육계 산지가격 하락 영향으로 2017년 닭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였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닭고기 수입량은 11만 4천 톤, 2025년 12만 5천 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 2016년에도 닭고기 공급과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닭고기 공급과잉으로 2016년 육계 산지가격은 생체 kg당 1,358원으로 2015년 대비 8.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장기적인 닭고기 수요 증가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상황에 따라 2020년 육계 산지가격은 kg당 1,615원, 2025년 1,851원으로 전망된다.

표 23-38.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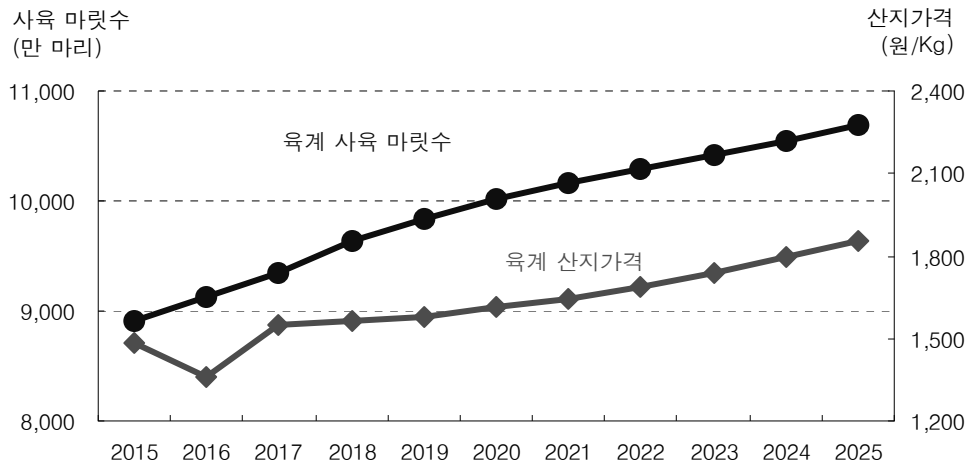
구 분	단위	2015	전망		
			2016	2020	2025
사육 마릿수	만 마리	8,907	9,132	10,012	10,693
생산	천 톤	573.2	586.6	638.9	679.3
수입	천 톤	116.7	136.5	114.0	124.9
1인당 소비량	kg	13.0	13.6	14.0	14.7
산지가격	원/생체kg	1,484	1,358	1,615	1,851

주 1) 1인당 소비량은 정육 기준임.

2) 산지가격은 명목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그림 23-44. 육계 사육 마릿수와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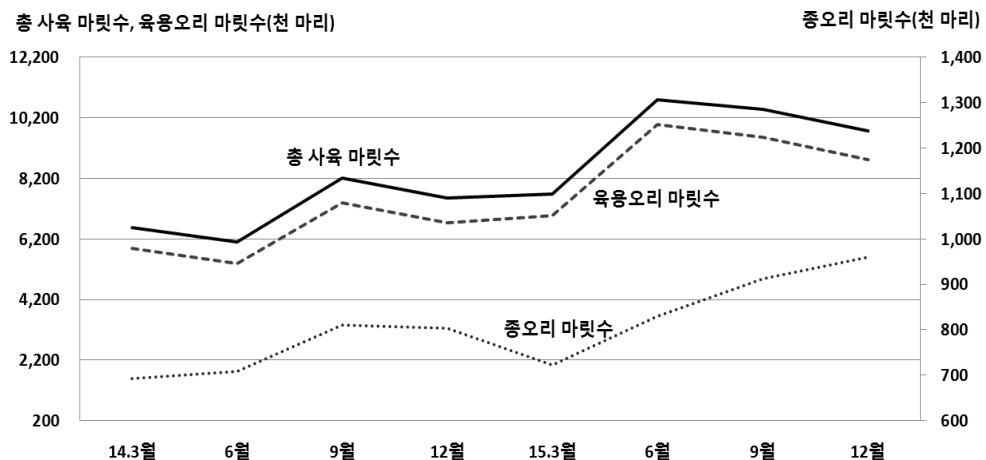
6. 오리

6.1.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동향

6.1.1. 사육 동향

- 2014년 HPAI 발생으로 오리 사육 마릿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종오리와 육용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5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2014년(710만 마리)보다 36.3% 증가한 967만 9천 마리였다. 이 중 종오리는 85만 6천 마리로 2014년(75만 4천 마리)보다 13.5% 증가하였다.
- 2015년 육용오리 연평균 사육 마릿수는 882만 3천 마리로 2014년(634만 7천 마리)보다 39.0% 증가하여 HPAI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2015년 3월 696만 마리에서 9월 956만 마리로 37.3% 증가하였으나, 12월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9월 대비 7.8% 감소(881만 마리)하였다. 2015년 12월 오리 사육 가구는 2014년 동월(605가구)보다 19.3% 증가한 722가구이다.

그림 23-45. 오리 사육 마릿수



자료: 통계청

6.1.2. 오리고기 수급 동향

- 2015년 오리고기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입식된 종오리 입식 마릿수는 2014년 발생한 HPAI의 여파로 2014년 동기 대비 25.3% 감소하였다.
- 2015년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는 2014년(4,783만 마리)보다 37.4% 증가한 6,571만 7천 마리였다. 2015년 총 도압 마릿수는 7,015만 마리로 2014년(5,101만 마리) 대비 37.5% 증가하였다. 도압 마릿수 증가로 2015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4년 대비 12.7% 증가한 11만 9,996톤이었다.
- 2015년 오리고기 수입량은 3,189톤으로 2014년(2,949톤)보다 8.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리고기 총 공급량 증가로 1인당 소비량은 2014년 대비 13.6% 증가한 2.5kg로 추정된다.

표 23-39. 오리고기 수급동향

단위: 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p)
공급	생산	118,891	154,514	169,568	158,303	106,450	119,996
	수입	2,158	4,270	3,661	2,942	2,949	3,189
	계	121,049	158,784	173,229	161,245	109,399	123,185
수요	소비	114,857	148,451	165,461	154,570	108,647	120,165
	수출	6,192	10,333	7,768	6,675	752	3,020
	계	121,049	158,784	173,229	161,245	109,399	123,185
1인당 소비량(kg)		2.4	3.1	3.4	3.2	2.2	2.5

주 1) 수입은 정육·지육, 열처리 포함.

2) 2015년은 농업관측센터의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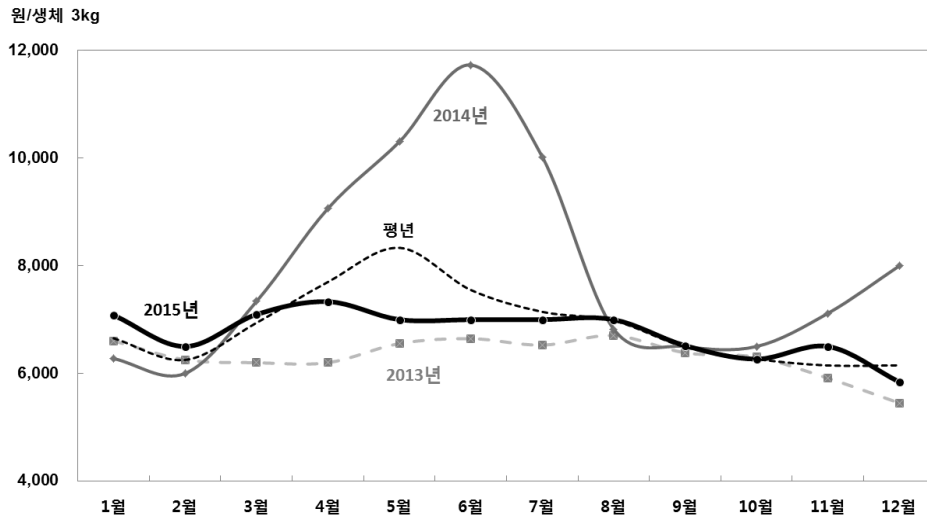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1.3. 오리고기 가격 동향

- 오리고기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로 인해 2012년 오리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였으나, 이후 2013년 종오리 조기 도태와 종란 폐기로 사육규모가 감소하여 오리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산지가격은 2012년 대비 9.5% 상승한 6,311원/3kg이었다. 2014년에는 HPAI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13년 대비 26.4% 상승한 7,974원으로 나타났다.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 오리 산지가격은 2014년 대비 15.2% 하락한 6,761원이었다. 지속적인 HPAI 발생으로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은 대부분 7,000원을 상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육용오리 입식 마릿수와 도압 마릿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하면서 12월 오리 산지가격은 5,839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3-46. 오리 산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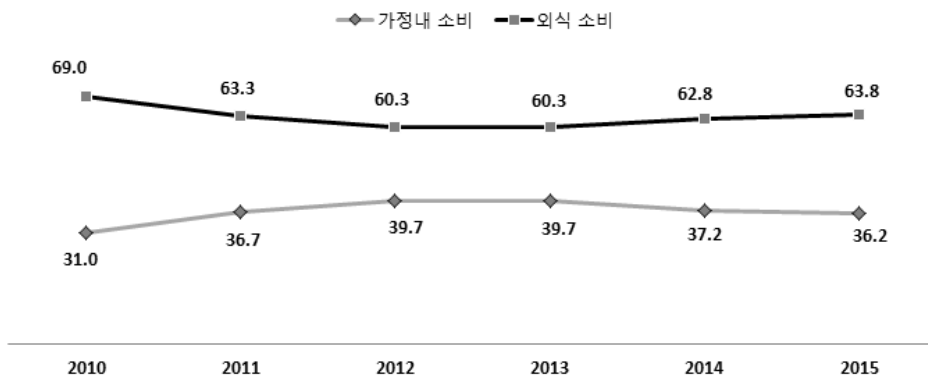
자료: 한국오리협회

6.1.4. 오리고기 소비 동향

- 2016년 1월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016년에는 오리고기 소비를 줄인다는 응답이 54.7%로 늘린다는 응답(26.5%)보다 더 많았다. 오리고기 소비 감소 요인으로 '오리고기 대신 다른 육류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34.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소비 증가 요인으로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가 78.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다.
- 소비자들은 오리고기 소비 시 가정내 소비(36.2%)보다 외식 소비(63.8%)를 더 선호하였고, 2012년 이후 가정내 소비보다 외식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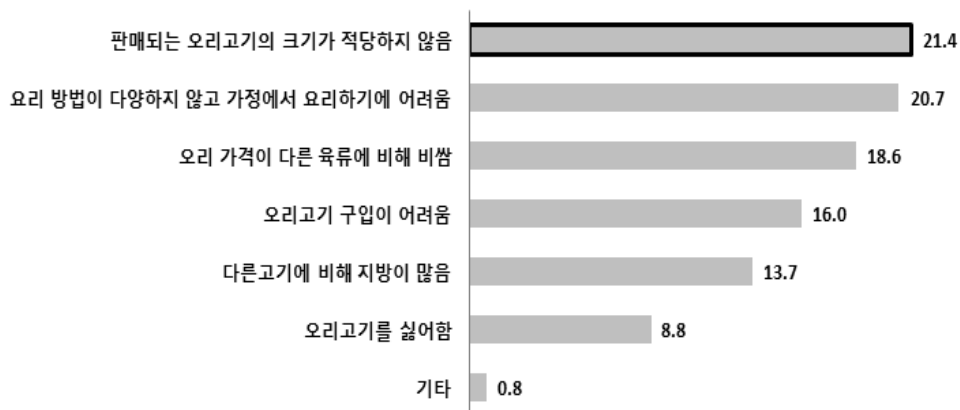
-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한 이유로는 ‘판매되는 오리고기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음’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요리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하기에 어려움’ 20.7%, ‘오리 가격이 다른 육류에 비해 비쌌’ 18.6%, ‘오리고기 구입이 어려움’ 16.0%로 나타났다.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손쉽게 요리할 수 있는 제품 크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림 23-47. 오리 소비 형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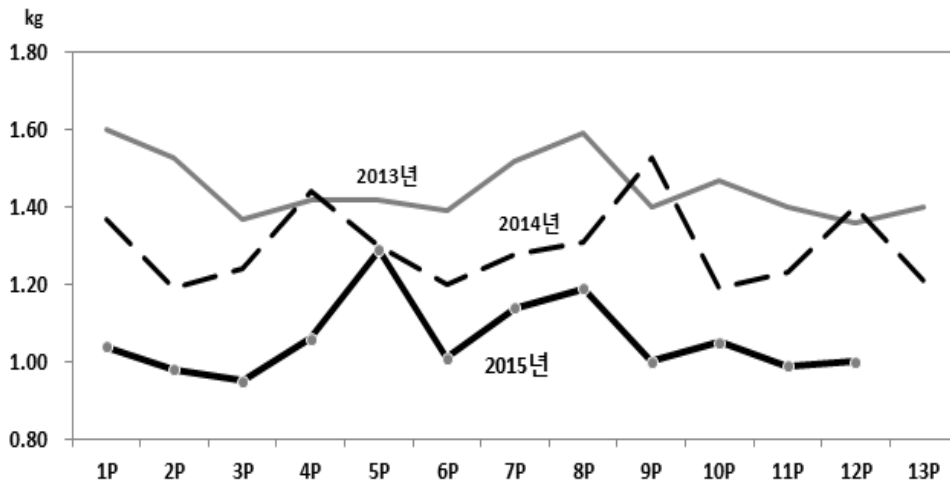
그림 23-48.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부진 원인



자료: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15년 가구당 4주 평균 오리고기 구매액은 14,900원/kg으로 2014년(17,270원)보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오리고기 구매량은 2014년(1.3kg)보다 18.5% 감소한 1.06kg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49. 가구당 오리고기 평균 구매량 변화



주: 2015년은 12월 6일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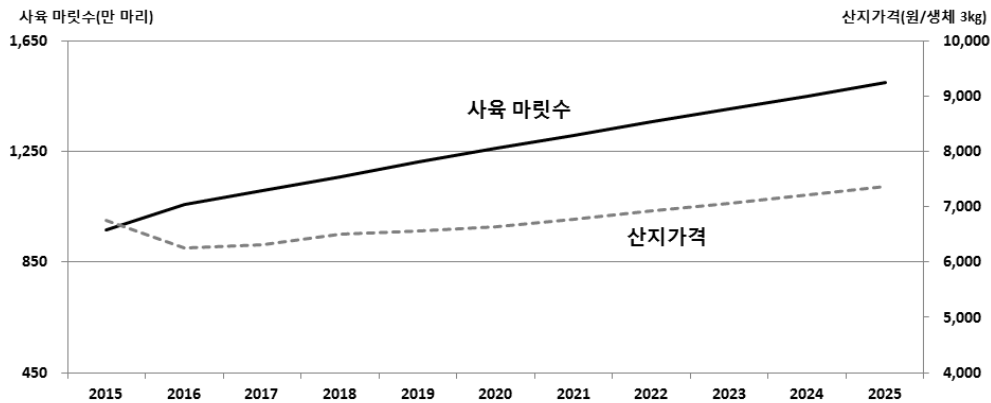
자료: Kantar Worldpanel Korea

6.2.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종오리 사육 마릿수와 육용오리 마릿수의 증가로 2015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4년 대비 12.7% 증가한 12만 톤이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종오리 입식이 증가하여 최근 사육 마릿수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 종오리 입식 마릿수 증가로 2016년 오리 사육 마릿수는 2015년보다 9.3% 증가한 1,058만 마리로 전망된다.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15년 대비 7.6% 증가한 1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2016년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2015년보다 7.6% 하락한 6,246원으로 전망된다.

- 오리 사육 마릿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65만 마리, 2025년 1,501만 마리로 전망된다. 오리 사육 마릿수의 증가로 오리고기 생산량은 2020년 15만 226톤, 2025년 17만 4,353톤으로 예상된다.
- 오리고기 생산량 증가로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6년 2.6kg, 2020년 2.9kg, 2025년 3.4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오리 산지가격은 2020년 6,646원, 2025년 7,353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3-50. 오리 사육 마릿수 및 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

표 23-40. 오리고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15	전망		
			2016	2020	2025
사육 마릿수	만 마리	968	1,058	1,265	1,501
생산	톤	119,996	129,121	150,226	174,353
수입	톤	3,189	3,043	3,201	3,375
1인당 소비량	kg	2.5	2.6	2.9	3.4
산지가격	원/생체 3kg	6,761	6,246	6,646	7,353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 제품의 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KREI-KASMO 2015)